

1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640.48 (+90.63)		1136.94 (-1.35)
	금리 (미국 3년)		환율 (원/달러)
	3.324 (+0.024)		1489.55 (-7.95)

생활형 부채 상승
채무조정액 60%
40·50대서 발생
08

주유비 상승은 ‘빙산의 일각’ 러·우 사태 재연 ‘인플레’ 공포

중동전쟁 중·장기화 국면

원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통상의 상단을 뚫고 동시에 고공 행진을 지속 중이다. 쉽게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주일미군 해병의 페르시아만 이동, 백악관의 주요국 대상 군함파견 요구 등으로 전개되면서 이른 휴·중전의 길이 요원해 보이는 탓이다. <관련기사 2·3면>

국제유가와 환율의 동반 오름세는 국내 경기의 위축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두 지표의 급등 상태가 지속될 시 물가 등 실물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원화까지 하락에 의한 수입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국내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다. 이는 식품가격 급등을 부른다. 또 원유 시세와 주로 연동돼 움직이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역시 제조업체 전반에 생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

17일 기준 미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493.6원에 주간(晝間)거래를 마쳤고, 미서부텍사스산원유와 북해산브렌트유, 중동산두바이유는 배럴당 95~130달러에서 거래됐다.

원유 값이 상승하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잇따라 오른다. 석 달쯤 뒤에는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중동전이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인플레이션 압력 관련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 사례는 외부 변수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러



‘4월 유류할증료 고시’를 앞둔 지난 16일 인천 국제공항 계류장에 항공기들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美 트럼프, 주요국 군함파견 요구 국제유가·환율 동반 ‘고공행진’ 석 달쯤 뒤엔 소비자물가도 뛰어 원화 하락, 생산비용 상승 ‘도미노’ 러·우 때 보다 물가상승 거셀 것

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국제유가가 폭등했고, 당시 3% 중반을 보이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그해 6월 들어 6%를 넘어섰다.

우선석유류(39.6%) 가격이 치솟았고 외식(10.4%)과 가공식품(7.9%), 농축수산물(4.8%) 등의 먹거리 가격 상승세도 뒤를 이었다. 또 국제항공료(21.4%), 전기료(11.0%), 도시가스(11.0%) 등도 크게 뛰었다.

문제는 이번 상황의 경우 국제유기뿐 아니라 환율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더 거셀 것이라 게 중론이다.

수입물가를 비롯해 물류비용, 기업 생산비용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1970년대 석유파동 때와 같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한 직후 국제금리가 0.2~0.3%포인트(p) 올랐다. 국내 물가상승 관측이 채권 시장 지표에 반영된 것이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유가가 75%가량 상승했는데도 41년 만에 고물가 현상이 나왔다”며 “올해는 유가가 (우크라이나전)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그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 물가와 경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석유파동과 같은 심각한 공급 충격 상태에서는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는 오르고 소비·투자 여력은 위축되면서 경기도 침체에 빠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주요 경제연구기관은 중동 사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내에 끝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르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1%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전시 부스를 찾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왼쪽)와 SK그룹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GTC 첫 출격 젠슨 황과 AI협력 공고화

SK하이닉스, GTC 참가 ‘AI메모리’ 주제 전시공간서 HBM4 등 제품 라인업 소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6’을 처음 찾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며 AI 반도체 협력을 공고히 했다. SK하이닉스는 행사장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시대를 겨냥한 메모리 기술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4면>

SK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16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GPU Technology Conference) 2026’에 참가해 ‘AI 메모리’를 주제

로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행사에 처음 참석해 젠슨 황 CEO의 키노트 현장을 찾았다. 키노트에서는 GPU 기반 가속 컴퓨팅과 AI 팩토리,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등 AI 산업 전반의 기술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 최 회장은 황 CEO와 함께 행사장 내 SK하이닉스 전시 부스를 찾아 AI 메모리 기술과 협력 성과를 살펴봤다. 두 사람은 전시 제품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눴으며, 황 CEO는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Vera Rubin)’ 전시 제품에 “JENSEN ♥ SK HYNIX”라는 사인을 남기기도 했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신세계, 美 스타트업과 AI데이터센터 짓는다

국내 ‘AI 팩토리’ 건설 MOU 총 투자비용 10조 웃돌 듯 정용진 “AI, 선택 아닌 생존”



로 보고 있다.

신세계가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리플렉션 AI와 손잡고 국내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유통 대기업이 AI 인프라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AI를 미래 핵심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는 16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에서 리플렉션 AI와 250MW(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이른바 ‘AI 팩토리’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약 25만 가

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총 투자 비용이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역할을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신세계는 부지 선정과 전력 확보, 운영을 맡고, 리플렉션 AI는 GPU 인프라 설계와 AI 모델·서비스 기술을 제공한다. 완공 이후에는 국내 기업과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AI 클라우드 및 맞춤형 모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의 AI 기술 패키지 수출 프로그램 1호 사

례로, 향후 금융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세계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기로 AI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커머스 및 오프라인 유통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AI 기반 맞춤형 추천과 결제·배송까지 수행하는 ‘AI 커머스’ 구현에 속도를 낸다. 물류·재고 관리 등 운영 전반에도 AI를 접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용진 회장(사진)은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8834@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7% 상승

상승률 역대 세 번째 높아 강남3구 24.7% ↑... 지역격차 확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상승하며 전국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는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강남3구는 24.7% 급등하며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111㎡)의 올해 보유세 추정액은 지난해보다 57.1% 오른 2919만원이다.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 원베일리(84㎡)의 경우 지난해 1829만원에서 56.1% 오른 2855만원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공

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를 유지한 채 시세 변동만 반영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18.67% 올라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24.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도 23.13% 올랐다. 그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지방은 상승폭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한 모습이다. 경기(6.38%), 세종(6.29%)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구(-0.76%), 광주(-1.25%), 제주(-1.76%) 등에서는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 /사진 뉴시스
▲오세훈, 결국 공천 신청... “장동혁 안 바뀌면 서울부터 변화”

▲국방부 “청해부대, 호르무즈 우리 선박 위협 대비 오만 원해에서 대기”
▲이 대통령 “경찰관 법 집행 정교해야...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명품백·민원사주 의혹 등 조사
▲‘서울시장 출마’ 전현희, 청년정책 발표... “최대 1천만원 무심사 대출”

李 “전쟁 추경’ 서둘러야… 자동차 5부제 등 비상대책 강구”

李 대통령, 서민·기업 지원 강조
원전 가동 확대 등 에너지대책 언급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해 전쟁 예산,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면서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에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 걷어들일 세금을 피해 계층에 지원해 양극화 완화에도 쓰는 게 맞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장기화되면) 석유 최고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 원가하고 차액을 우리가 보상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

었다.

이어 “최고가격을 올리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며 “(이와 함께)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바우처를 주든지, 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수출 통제도 해야 되고, (차량) 10부제, 5부제도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원전 가동률도 높이고 온갖 비상대책을 해야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직접 지원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류세를 대폭 깎아달라’ (하지만), 유류세를 걷어서 다른 데 안 쓴다”며 “이번 피해 상황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처럼 재정 지출을 더 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얻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그만큼을 오히려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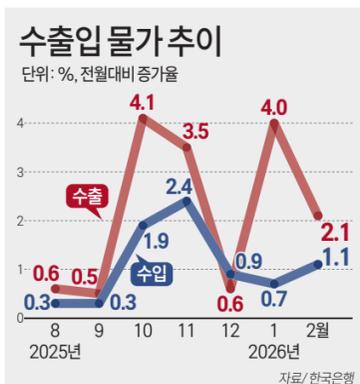
metro

반도체 중심 교역조건 개선… 유가·환율 등 비용부담 ‘암초’

2월 수출물가 전월대비 2.1% 상승
대외환경 급변… “추가 개선 불투명”

한국 경제가 지난 2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강세에 수출물가와 수출물량이 함께 뛰면서 교역조건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3월 중동 리스크와 고유가, 환율 변동성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면서 2월의 개선 흐름이 이어질 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수출물가(원화 기준)는 전월 대비 2.1%, 수입물가는 1.1% 각각 상승했다. 무역지수 기준으로는 수출물량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6%, 수출금액지수가 28.6% 올랐고,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도 각각 13.0%, 31.8% 상승했



다. 수출 가격과 물량이 함께 늘면서 대외거래 여건은 2월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2월 지표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가 있었다. 한은은 “수출물가가 원·달러 환율 하

락에도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오르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월 대외지표 개선은 수출 전반의 고른 회복이라기보다 반도체 중심 IT가 수출 측면을 주도한 성격이 강했다.

문제는 같은 2월 지표 안에서도 이미 3월 부담의 단서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2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56.51원에서 1449.32원으로 0.5% 하락했지만, 수입물가는 오히려 올랐다. 환율 하락에도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2월 68.40달러로 10.4% 뛰었다.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한 원재료 가격도 3.9% 상승했다. 환율이 다소 진정돼도 유가가 오르면 비용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이 2월 수

치에서 이미 확인된 셈이다.

다만 교역조건 개선과 수입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순으로 볼 순 없다.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해당 월의 환율과 국제가격 변동을 직접 반영하는 반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시차를 적용한 수출·수입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즉 2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가 올랐더라도 전년 동월 기준 교역조건은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지표는 수출 추가 가격 여건이 나아진 흐름과 에너지·원재료발 비용 압력이 동시에 존재했음을 함께 보여준다.

2월의 ‘좋은 숫자’만으로 3월 이후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한쪽에선 반도체 중심 IT와 수출물량 증가가 교역조건을 끌어올려 지표를 개선시켰지만, 다른 한쪽

에선 환율 하락에도 유가가 비용 압력을 밀어 올리는 구조다.

실제로 이날 아시아장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2달러대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갔다. 달러도 주요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강제 흐름을 유지했다. 2월까지의 수출 회복이 숫자를 지탱했다면, 3월부터는 고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그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셈이다.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3월 들어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대외 환경 급변으로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물가와 성장 경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반도체 경기 외에 최근 부각된 중동 상황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과 국내 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1면 ‘주유비 상승은 빙산일각’서 계속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군함과전 재촉구

주요국 반응 냉담… “우리 전쟁 아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요구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부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이 특수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외신 등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호위 임무란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호주, EU 등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

간)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 오찬을 개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더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항로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1%도 되지 않는데, 일부 국가들은 그보다 훨씬 많다”면서 수십년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 정작 미국의 도움 요청에는 망설이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가져온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양을 들여오고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 해협과 관련해 그들이 들어와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처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군군함파견을 요구했다. 전날에는 기자들과 만나 7개국에 요청을 보였으며, “우리는 (이런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는 위협성 발언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일부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도와주고 끔찍한 외부 위협에서 보호해준 국가들조차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어떤 나라들에 4만5000명의 훌륭한 병력을 주둔시키며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왔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 독일 등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란이 유조선을 향해 발사체 공격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이번 해군 작전은 “매우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국 반응은 냉담하다. 독일과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거절의사를 나타냈다. 이탈리아와 호주, 프랑스, 일본 역시 당장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27개국 외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요청에 대해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면서 군사개입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뉴스1

“내수 치명적 영향 줄수도”

그러나 해협 봉쇄가 수개월간 지속되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오르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물가상승률이 1.1%p 상승하고 성장률은 0.3p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 급등에 GDP(국내총생산) 증가세 둔화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유가가 150달러 선까지 오르는 ‘오일쇼크 시나리오’에서는 물가상승은 2.9%p까지 폭등하고 성장률이 0.8%p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GDP 제자리 혹은 역성장도 감내해야 하는 시나리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아직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상승이 내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석화업계, 이달 말 셋다운 분수령... 제조업 공급망 '흔들'

호르무즈 차질에 나프타 수급 불안 석화업계 감산 버티기, 셋다운 기로 재고 1~2주 수준, 이달 말 고비 여천NCC 불가항력 선언, 업계 촉각 車·전자 등 제조업 공급망 충격 우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이달 말 공장 가동 여부를 가늠 분수령에 놓였다. 대응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되며 셋다운이 현실화되는 흐름이다. 자동차·전자 등 주요 제조업 전반으로 공급망 충격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이번 주 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를 기점으로 공장 가동 여부를 둘러싼 중대한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다운과 불가항력 선언을 포함한 대응 수위를 놓고 판단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여천NCC는 이미 지난 4일 고객사에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전남 여수석유화학단지.

/뉴스시스

공급 지연을 통보했으며 롯데케미칼·G화학 등 다른 기업들은 가동 유지와 생산 중단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화학은 제조업 전반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산업이다. 석유화학업체들은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중간재 업체들이 비닐, 플라스틱, 고무, 섬유 등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 산업 전반으로 공급한다. 이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출 경우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 제조업 전반의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확보한 나프타 재고는 업체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2주가량 버틸 수 있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미 가동률을 크게 낮춘 상태다. 국내 NC C 가동률은 기존 80~90% 수준에서 현재 60% 안팎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익성보다는 원료 소진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응으로 재고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 추가 물량 유입까지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현재 재고로 일정 기간 대응은 가능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감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공정 특성상 정상 생산이 어려워 결국 셋다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상 운송 경로 차질로 원료 유입 자체가 제한되면서 단기간 내 대체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거리 지역에서 원료를 도입할 경우 운송 기간이 길어당

장의 수급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구조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확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인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긴급 물류비 지원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원료 자체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축유 활용 역시 모든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 경우 정부가 산업별 중요도를 고려해 납사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서 비롯된 만큼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며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여부"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가상자산 투심 부활... 악재에도 연일 우상향

중동 불안에도 비트코인 강세 ETF·기관 매수에 시장 반등 극단적 공포 벗어나 투심 회복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위험자산 선호가 위축되는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기관투자자를 통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연이은 악재에 위축됐던 가상자산 시장의 투심도 일부 회복됐다.

17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정오께 1BTC당 7만 5194달러에 거래됐다. 전일 대비 3.65% 상승한 가격으로, 지난 9일 이후 8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24시간 내 비트코인 거래량도 약 600억 달러를 기록해 직전구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도 상승세다.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1주일간 15.2%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시총 3위 리플(XRP)은 15%, 4위 바이낸스(BNB)가 6.1%의 상승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상향 움직임을 보였다. 전반적인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

주 2조4000억달러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시장 시총도 1주일 새 2조5800억달러까지 늘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은 '중동사태'의 장기화에도 우상향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불확실성 국면에 가격이 하락하는데, 최근에는 이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것.

시장에서는 전쟁 이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ETF 자금 유입, 기관투자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으로 풀이했다. 중동사태 초기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에도 미국에 상장된 주요 비트코인 ETF는 3주 연속 자금이 유입됐으며, 스트

래티지를 비롯해 비트코인 비축기업은 대규모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특성에 힘입어 부분적으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만큼, 투자자들이 24시간 현금화가 가능한 가상자산을 '헤징(Hedging·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파생상품 기업 플로우데스크의 핸슨 비링어 이사는 "차입 투자로 24시간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주말처럼 기존 금융시장이 닫혀 있을 때 트레이더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연일 우상향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비축 중단 선언 이후 위축됐던 투심도 돌아오

고 있다. 이날 가상자산 시장의 투심을 나타내는 '공포-탐욕지수'는 44(100에 가까울수록 시장 강세)를 기록해 '중립' 구간에 머물렀다. 앞서 이달 초에는 공포-탐욕지수가 16까지 하락해 '극단적 공포' 구간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며 유가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입지가 굳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 IG그룹의 크리스 보샤프 시장분석가는 "다른 모든 것들이 유가를 따라 생사가 갈리고 있지만(live or die based on oil prices), 비트코인은 이에 면역인 것 처럼 보인다"라며 "비트코인은 자신만의 작은 안식처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무엇이 24번 국도를 달리게 할까요?

그 남자? 그 여자?

시원한 바람?

새로 산 전기 바이크?

저마다 답은 다르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찾은 답은 에너지에 있습니다

내일을 만드는 건 기술이지만 내일을 움직이는 건 에너지입니다

내일의 에너지가 꿈틀

한국수력원자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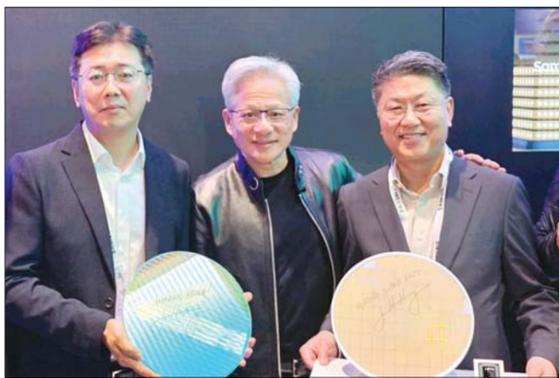
“AI 팩토리, 차세대 데이터센터 될 것”… 韓 메모리 기업 부각

젠슨 황, 韓 기업 핵심 파트너 언급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 공개

AMD, 차세대 AI GPU로 도전장
슈퍼마이크로, AI 서버시스템 선배
LG전자, 냉각 솔루션 수혜 가능성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6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SAP 센터에서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콘퍼런스 ‘GTC 2026’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TC 2026 삼성전자를 방문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 황 CEO,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 /삼성전자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기술 행사인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차세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략이 공개되며 AI 산업 경쟁이 칩 중심에서 데이터센터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며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메모리 기업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GTC에서는 차세대 AI 반도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략이 공개됐다. 네트워크·스토리지·소프트웨어 등 인프라가

술이 함께 소개되며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이 반도체 단일 제품을 넘어 데이터센터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젠슨 황 CEO는 기조연설에서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AI 팩토리는 차세대 데이터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CEO가 한국 메모리 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다시 부각됐다. AI 데이터센터용 GPU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만큼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메모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행사 기간 중 이뤘던 황 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동도 주목을 받았다. 최 회장이 GTC 행사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업계에서는

HBM 공급 확대와 AI 인프라 협력 가능성 등을 점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이번 행사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인 HBM4E를 공개하며 AI 메모리 경쟁력을 부각했고 SK하이닉스는 HBM4 등 차세대 AI 메모리를 전시했다.

AI 반도체 경쟁도 이어졌다. AMD는 차세대 AI GPU를 공개하며 엔비디아와 경쟁에 나섰다.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 GPU 기반 AI 서버 시스템을 선보

였다. LG전자는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사업을 앞세워 AI 인프라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Vera Rubin)’을 공개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략도 제시했다. 베라 루빈은 CPU와 GPU, 네트워크 칩 등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대규모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또 AI 추론 소프트웨어 ‘다이나모(Dynamo) 1.0’과 데이터센터 설계 모델 ‘베라 루빈 DSX AI 팩토리 레퍼런스 디자인’도 공개했다. 이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GPU뿐 아니라 메모리, 네트워크, 냉각 등 인프라 전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HBM을 공급하는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영향력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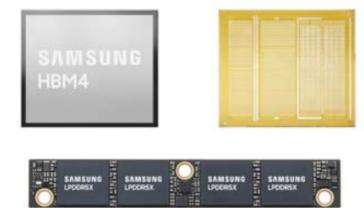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전자, ‘베라 루빈’ 겨냥 HBM4E 공개

‘HBM4 히어로 월’ 전시 꾸리고
종합반도체 기업 경쟁력 부각

삼성전자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행사에 참가해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E 기술을 선보였다. 아울러 엔비디아 AI 플랫폼 ‘베라 루빈’을 구현하는 메모리 토탈 솔루션 공급 역량을 앞세워 글로벌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GTC(GPU Technology Conference)에서 차세대 ‘H



삼성전자 HBM4 제품(위), 삼성전자 SOCAM M2 제품(아래). /삼성전자

BM4E’ 칩과 AI 인프라용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HBM4 히어로 월(Hero Wall)’을 별도로 꾸리고 HBM4부터 메모리,

로직 설계,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종합반도체 기업(IDM)으로서의 경쟁력을 집중 부각했다.

전시 공간을 ▲AI 팩토리(AI Factories, AI 데이터센터) ▲로컬 AI(Local AI,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Physical AI) 세 개로 나눠 GDDR7(그래픽용 D램), LPDDR6(저전력 D램), PM9E1(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도 함께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HBM4E 실물 칩과 코어다이 웨이퍼를 처음 공개했다. HBM4E는 1c D램 공정과 파운드리 4나노 베이

스 다이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 중이며 핀당 최대 16Gbps 속도와 4.0TB/s 대역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HCB(Hybrid Copper Bonding)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이 기술은 기존 TCB(Thermal Compression Bonding) 대비 열 저항을 20% 이상 개선하고 16단 이상의 고적층 HBM 구현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IDM)만의 토탈 솔루션을 통해 개발 효율을 강화해 고성능 HBM 시대에서도 성능과 품질을 압도하는 기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빈(Vera Rubin)’을 겨냥한 메모리 솔루션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갤러리’를 별도로 구성, ▲루빈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용 HBM4 ▲베라 중앙처리장치(CPU)용 저전력 메모리 모듈 소켓2 ▲스토리지 PM1763을 베라 루빈 플랫폼과 함께 전시하며 양사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소켓2는 LPDDR 기반 서버용 메모리 모듈로 삼성전자는 품질 검증을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최근 시작했다. 또 PCIe 6세대(Gen6) 기반 서버용 SSD PM1763은 베라 루빈 플랫폼의 주력 스토리지로 제시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차세대 HBM과 메모리 솔루션을 통해 AI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현대차,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시대 앞장

드라이브 하이퍼리온 도입
AI 데이터 선순환 체계 구축도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AI 컴퓨팅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와 손잡고 자율주행 및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를 앞당긴다.

현대차·기아는 엔비디아와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업을 확대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0월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회동, 올해 1월 CES에서의 만남 등 양사 수장 간의 지속적인 교감이 실질적인 기술 동맹으로 이어진 결과다.

◆엔비디아 ‘하이퍼리온’ 아키텍처 도입…자율주행 레벨 4까지 확장

양사는 현대차그룹의 SDV 역량과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결합해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표

준 설계구조인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퍼리온’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이퍼리온은 고성능 CPU·GPU와 센서, 카메라 등을 통합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통합 설계구조를 자체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품질·안전 철학에 기반해 SDV 차량을 개발 중인 현대차·기아는 엔비디아가 보유한 레벨 2 이상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일부 차종에 선제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합작법인 ‘모셔널’을 통해 레벨 4로봇택시의 기술 고도화를 본격화한다.

◆데이터 선순환 체계 구축…AI 내재화로 경쟁력 차별화

양사는 단순히 하드웨어 도입을 넘어 ‘AI 내재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광범위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영상·언어·행동

데이터를 단일 학습 파이프라인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AI가 실제로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하고 학습하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구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홍수 현대차그룹 GSO(글로벌전략조직) 담당(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 확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구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레벨 2부터 로보택시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시 달 엔비디아 자동차 부문 부사장 역시 “현대차그룹의 엔지니어링 기술력과 엔비디아의 컴퓨팅·AI 기술 결합으로 지능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과 자체 기술 개발을 병행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글로벌 대응력을 다각도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



HBM 중심 글로벌 AI 생태계 협력 굳히기

▶▶ 1면 ‘최태원 회장, GTC…’서 계속

업계에서는 최 회장의 이번 행보가 HBM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생태계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차세대 HBM4 공급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요한 축으로 꼽힌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뤄진 ‘치맥 회동’ 이후 약 한 달 만에 성사된 것이다. 양사는 HBM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GTC에서 AI 메모리 기술과 제품 라인업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을 열었다. 전시관은 ▲엔비디아 협업 존 ▲제품 포트폴리오 존 ▲이벤트 존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장 입구에 마련된 ‘엔비디아 협업 존’은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협력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HBM4와 HBM3E, 저전력 메모리 모듈 SOCAMM2 등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제품이 엔비디아 AI 플랫폼에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GPU 기반 AI 가속기의 메모리 구성을 모형과 실물 형태로 구현해 전시한다.

특히 엔비디아와 협업해 개발한 액체 냉각식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를 비롯해 SK하이닉스의 LPDDR5X가 탑재된 엔비디아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DGX Spark)’도 함께 공개됐다.

‘제품 포트폴리오 존’에서는 HBM4와 HBM3E를 비롯해 고용량 서버용 D램 모듈과 LPDDR6, GDDR7, eSSD, 자동차용 메모리 솔루션 등 AI 시대를 겨냥한 메모리 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참여형 체험 공간인 ‘이벤트 존’에서는 HBM 적용 구조를 모티브로 한 ‘HBM 16단 쌓기 게임’이 운영된다.

/구남영 기자



2026년, 하나증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행합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내일의 가치

“
하나증권 발행어음이
모험자본 투자로
손님과 혁신기업의
내일을 키웁니다
”



하나 하나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발행어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발행사(AA, 2025.08.13,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024호(2026.01.06~2026.12.31)CC브랜드 260106-0096

이 대통령 “세금은 핵폭탄”... ‘부동산 잡기’ 총력 지시

문제 원인으로 ‘대출 중심 투자’ 지목
금융·공급·세제 유기적 대응 강조
검찰개혁 논란, 당정 소통부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과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 이를 하지 않는 국민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찾아달라”며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 재정부의 세제 정책이 유



이재명 대통령과 김재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

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부마항쟁 정신, 지방자치 강화,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넣은 개헌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선 “(논의) 과정 관리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속의를 해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속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

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 측이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진짜 문제”라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식으로,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하고 해결해야지 아예 안하는게 어둡느냐, 이상한 것 같다,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금융 관련된 걸 많이 맡고 있는 데가 정무위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도 고쳐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된다”면서 “국회 가서 읍소를 하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하라). 그래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 검찰개혁 2단계 합의... 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행

검사 수사 지휘·개입 관련 조항 삭제
중수청 수사관련 검사 개입 통로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 법안(공소청·중수청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당정청 간 ‘물밑조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설명 등 수습이 계속되자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법 1차 정부안이 제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그대로라며 “국민이 걱정된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 관련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정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로 수정하고 ▲중수청 수사관의 입건 등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등을 배제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또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 공소청을 설치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도 삭제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수사 중지 및 사법경찰관리 등 직무배제 요구권도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삭제했다.

공소청장 등 상부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동일체 논란이 불거진 공소청장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권도 삭제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예외적 경과 기관도 90일로 단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에서 공들여 조율한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여권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라는 1단계 조치가 있었고, 2단계 조치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정지권과 여권 지지층의 눈길이 쏠렸다.

하지만 1월 1차 정부안 발표 이후 수정을 거쳐 지난달 2차 정부안이 발표됐음에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나 강성 지지층 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수정안

이 검찰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논란이 과열되면서 최근엔 유튜브 김어준씨의 방송에선 ‘대통령 공소취소 거러설’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정 대표가 먼저 지난 13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해서 여러분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특히 공소청 책임자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칭 논란이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책임용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를 향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출마 선언한 오세훈 “혁신 선대위 관철”

“선당후사 정신으로 후보 등록”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서울시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의 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서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만 보겠다”며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 ‘박원순 시즌 2’를 막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극우 유투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공천 신청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왔던 보수의 쇠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우리 당의 빛나는 전통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강원 김진태·경남 박완수·울산 김두겸 공천

국힘, 부산 박형준·주진우 2인 경선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 울산 광역시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경남도지사 후보에 각각 현역인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부산시장 후보는 박형준 현 시장과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경선을 통해 뽑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공관위는 울산시장 후보에 대해 “김두겸 시장은 주력 산업의 기반 강화와 함께 수소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으며, 울산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울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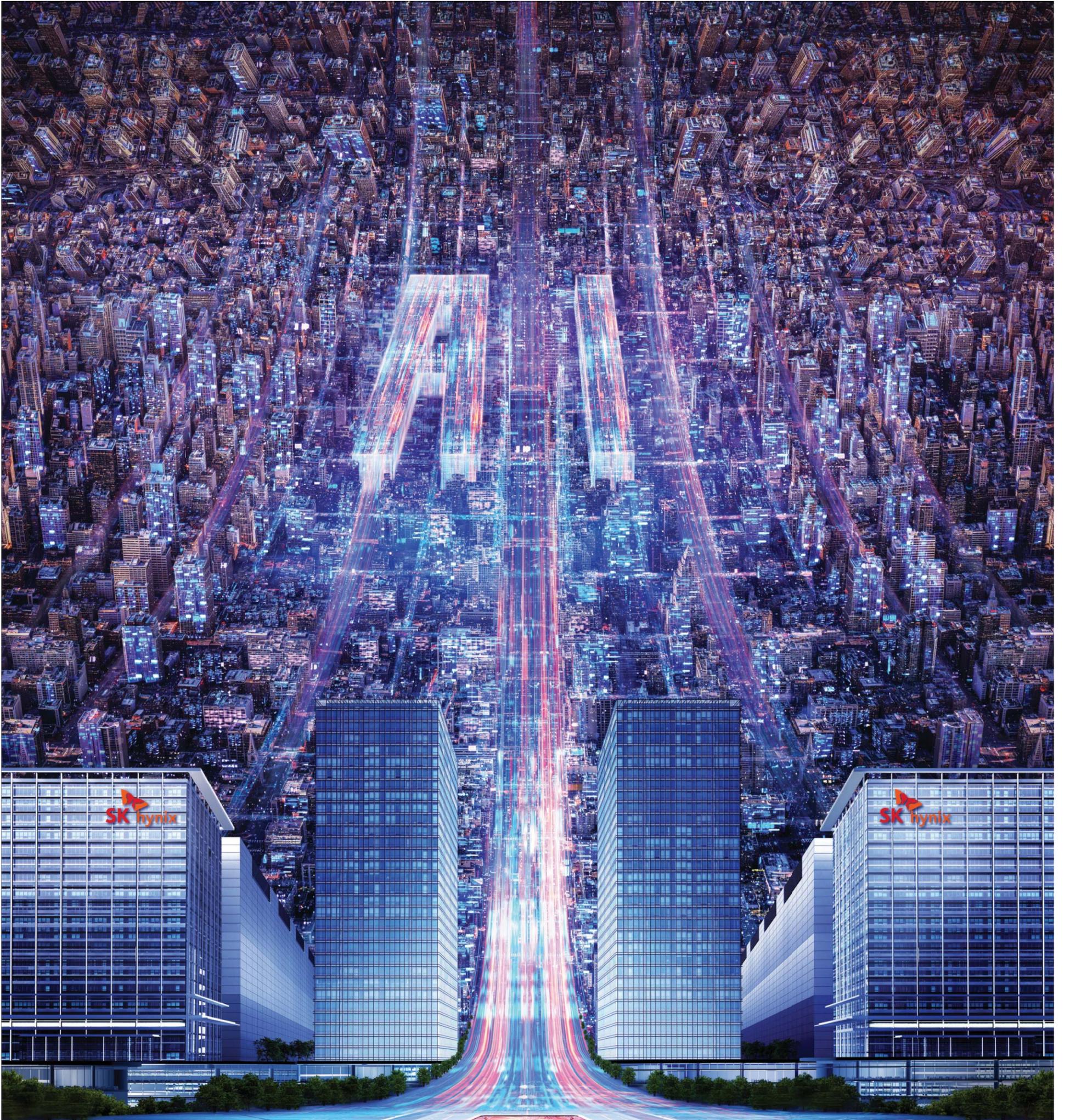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김진태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다시 한번 낙점됐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박완수 지사는 풍부한 행정·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 왔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경상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고 했다.

또 공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SK hynix

SK hynix

시대 전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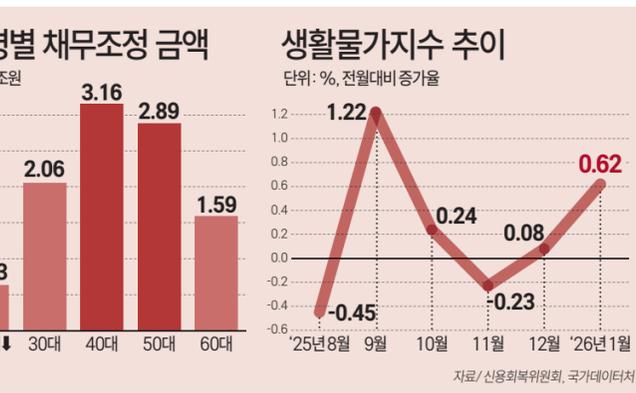
‘高·高’ 속 생활형 부채 상승… 채무조정액 60% 40·50대

〈고물가·고금리〉

신복위, 작년 채무조정액 10.3조 40·50대 2개 연령대서 60조 차지 주담대·사업자 대출 등 직접 영향 생계비 급증 20·30대 재무여력 악화 “취약차주 중심 선제적 관리 필요”

지난해 채무조정 금액의 약 60%가 40·50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채무조정도 빠르게 늘면서 금융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소득이 줄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금액은 총 10조32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대가 3조15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조88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경제활동과 소비의 중심인 이른바 ‘허리세대’에 채무 부담이 집중된 모습이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 역시 40·50대가 가장 많았다. 이들 연령대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40·50대에 이어 청년층에서도 채무조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1년 1만3078명에서 지난해 2만1348명으로 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역시 2만4088명에서 4만1489명으로 70% 이상 늘었다.

전 연령대로 채무조정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생계비 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식비와 주거비, 공과금 등 필수 지출이 빠르게 늘어난 데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상환여력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소득 기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를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채무 취약성이 더 빠르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라

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중은 약 25%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증가 속도보다 물가와 생활비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면서 가계의 재무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

생활물가도 서서히 오르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0.23% 감소하던 것에서 같은해 12월 0.08%, 올해 1월 0.6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식품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0.71%→-0.12%→0.58%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물가와 금리

부담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채무조정 수요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채무조정 증가 흐름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고금리·고물가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상환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40·50대는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 대출 등 규모가 큰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금리 변동에 따른 충격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청년층은 소득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생활비상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으로 필수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 정상 상황이 어려운 차주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향후에는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연체 확대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선제적인 관리와 맞춤형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누리 기자

yl115@metroseoul.co.kr metro

‘분상제’ 강남 아파트, 줄줄이 청약 돌입

아크로드 서초, 오티에르 반포 총 1412가구 규모… 20일 청약 반포디에이치클래스 분양 미정

서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가 줄줄이 청약에 나선다. 서울에서도 핵심입지로 꼽히는 데다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17일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고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서초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드 서초’와 신반포 22차를 재건축한 ‘오티에르 반포’가 나란히 오는 2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동에 들어서는 아크로드 서초는 지상 39층,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당초 작년 10월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올해로 미뤄졌다.

단지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드’가 적용됐으며,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

서이초가 단지와 맞닿아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서운중이 위치했다. 강남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한전아트센터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있다.

잠원동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반포는 지상 20층, 2개 동, 총 251가구 규모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첫 단지다. 단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용 44㎡부터 115㎡까지 다양한 면적대가 공급된다.

단지는 반포역(7호선), 고속터미널역(9호선), 잠원역(3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신세계백화점과 서울성모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했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를 크게 밀돌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최고가는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티’로 3.3㎡당 8484만원이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포동과 잠원동의 3.3㎡당 평균가는 각각 1억3093만원, 1억522만원이다.

다만 두 단지 모두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다. 아크로드 서초가 전용 59㎡ 56가구, 오티에르 반포는 전용 44~115㎡ 86가구다.

대규모 물량은 반포동에서 반포주공 1·2·4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디에이치클래스’에서 나올 예정이다. 전체 5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 분양 물량이 1800가구 안팎에 달한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분양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IBK기업은행, 생산적금융 전담심사반 운영

혁신기업 자금수요 신속 대응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전담심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생산적금융 전담심사반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분야 등 혁신기업의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

해 신설됐다. 여신 심사를 위한 전문 심사역, 공인회계사, 애널리스트 등 전문 인력 40명으로 구성돼 자금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3영업일 이내 심사 완료 체계를 도입하고 전문 기술 평가위원의 컨설팅 결과를 심사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가 미흡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센터에서 부절되거나 심사가 지연된 여신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본부 재검토 프로세스’를 운영해 기술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담심사반 가동으로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 공급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신한은행 “신용대출, 저금리로 갈아타세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온라인 대환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한 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출이동서비스는 개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중심으

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를 비롯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 개인사업자이며, 1억원 이내의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등 일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한은행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증액 대환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나누리 기자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에 시민응원 래핑

빅히트 뮤직 협업… 희망 메시지

교보생명은 17일 빅히트 뮤직과 협업해 서울 종로구 분사 사옥 외벽에 시민들의 도전과 노력을 응원하는 초대형 래핑을 선보였다.

이번에 설치한 래핑의 문구는 ‘나에게서 시작한 이야기가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 ‘본인 코리아, 플레이 포 더 월드(Born in Korea, Play for the World)’다. 세계를 무대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방탄소년단 처럼, 모든 시민들이 도전하고 노력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봄이 되면 새 생명이 다시 자라나듯이, 기적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광화문글판 봄편 문안인 ‘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 디자인은 태극기 사래인 건곤



1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 초대형 래핑이 설치돼 있다. /교보생명

감리에서 모양을 따왔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디자인 요소를 서체, 색상 반영했다. 전통 민화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광화문글판 봄편과 함께 광화문 네거리에 한국적 아름다움을 전달해 K-컬처를 세계에 알린다.

교보생명은 광화문글판과 방탄소년단의 만남을 발판 삼아 K-컬처를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삼성전자, 비상경영체제 돌입 노조 '파업 예고' 잇갈린 행보

사측, 유가·환율 등 변수 대응
노조,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
주요 계열사 비상경영 기조 확산

삼성전자의 노조와 사측이 중동전쟁과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상승), 중국의 저가 공세 등 대외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분의 비용절감에 착수하며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진행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핵심 경영진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 부문은 이달부터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임원 항공권 등 해외 출장 경비는 물론 부장급에만 적용되던 10시간 미만 비행 시 이코노미클래스 이용 규정을 부사장급 이하 임원으로 확대했다.

삼성전자가 핵심 계열사에 대한 비상

경영에 돌입한 것은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실적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DX부문의 영업이익은 2023년 14조 4000억원, 2024년 12조 4000억원, 2025년 13조 5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메모리 가격급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모리 가격급등은 반도체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의 사상 최대실적을 견인했지만 동시에 완제품 판매비중이 높은 DX부문에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도 삼성 계열사들의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 가전과 스마트폰에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유가 상승으로 해상운송 비용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회사 전체가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급(OPI) 상한 폐지와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는 18일에 공개된다. 투표가 가결될 경우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조는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삼성그룹 핵심 IT 계열사인 삼성 SDS는 LG CNS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비용 절감과 업무 강도를 높이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LG CNS는 AI·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58.5%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삼성 SDS도 클라우드 사업이 15.4% 성장하며 IT서비스 부문에서 힘을 보탤지만, 물류 부문 부진으로 전체 성장세가 둔화됐다.

삼성 SDS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출장 등의 비용도 최소화하고 있다. 삼성 SDI도 전기차 수요 정체와 실적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전반의 기조에 맞춰 강도 높은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w@metroseoul.co.kr



metro



17일부터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 연료전지 엑스포 2026'에 설치된 현대자동차그룹 부스 전경.

현대차그룹, 日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

국제 수소 & 연료전지 엑스포 참가
상반기 중 '디 올 뉴 넥소' 출시 예정

현대차그룹이 17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 연료전지 엑스포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소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엑스포에서 현대차그룹은 수소 브랜드이자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 O'를 중심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수소 모빌리티 ▲수소 충전 및 저장 ▲산업 애플리케이션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기술·역량을 소개한다.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소'를 선보이며 주행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승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디 올 뉴 넥소'는 현대차의 수소 에너지 비전과 친환경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차세대 승용 수소전기차 모델이다. 최고출력 150kW를 발휘하는 모터가 탑재돼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8

초의 가속 성능을 갖췄다. 5분 내외의 짧은 충전 시간으로 최대 72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 중 일본에 출시하는 모델의 경우 정전과 지진이 빈번한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 비상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V2H 사양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수소전기트럭과 수소 전기트램 모형을 함께 전시해 승·상용 차량을 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수소 기반 모빌리티를 선보인다.

혁신적인 충전·저장 기술도 선보인다. 우선 로보틱스랩의 '수소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ACR-H)을 활용한다. 디 올 뉴 넥소 충전 시연을 한다.

또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 모형을 전시한다. 핵심 설비를 컨테이너에 모듈화해 조립한 충전 설루션으로, 가로·세로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복층화와 지중화 기술을 접목해 도심에 적합하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양성운 기자

LG엔솔, 6조 LFP 배터리 고객 '테슬라'

美 정부, 양사 배터리 계약 공식 확인
"북미 생산기반 바탕 글로벌 시장 공략"

미국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 간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공식 확인하면서 양사의 협력 관계가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7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14~15일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에너지안보장관 및 비즈니스포럼(IPEM)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 확대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총 560억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에너지·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배터리 산업을 전력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미 정부는 테슬라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주 랜싱에 43억달러(약 6조 40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각형 배터리 셀 제조시설을 구

축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명시했다. 해당 공장은 내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은 휴스턴에서 제작되는 테슬라의 대형 ESS '메가팩3'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LG에너지솔루션이 공시한 43억달러 규모 ESS용 LFP 배터리 수주 계약의 고객사가 테슬라인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당시에는 비밀유지계약(NDA)에 따라 고객사와 생산 지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꾸준히 테슬라를 유력 고객으로 지목해 왔다.

이번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기반 LFP 배터리로 확보한 첫 대규모 고객 사례로 북미 ESS 시장 확대 국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LFP 배터리는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주도해 온 분야다. 테슬라 입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지 않을 경우 미국의 보조금 및 공급망 정책

대응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은 공급망 안정성과 정책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는 양사의 배터리 협력이 전기차 중심에서 ESS로 확장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구축 흐름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ESS 공급 역량을 확인한 사례로도 의미를 갖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전기차 중심으로 이어져 온 고객사와의 배터리 파트너십이 ESS 영역으로 확장된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미 현지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모비스, 車반도체·로보틱스 경쟁력 강화

정기주총서 정의선 사내이사 재선임
이규석 사장 "글로벌 고객사 비율 확대"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핵심 부품 등 미래 신성장 분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이 17일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핵심 부품 등 신성장 분야에서 조기에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강남구 역삼 GSE타워에서 열린 제49기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선행 연구를 활성화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글로벌 고객과 공동 선행 개발 등 협업을 강화하고 중국과 인도 등 핵심 성장 시장에서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장은 2033년까지 부품 제조 글로벌 고객사 비율을 4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재확인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61조 1181억원, 영업이익 3조 357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비계열사 수주 실적도 연간 91억 7000만달러로 목표 대비 123% 초과 달성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현대모비스 사내이사 재선임 안과 함께 성낙섭 FTCI 담당 전무를 신규 사내 이사로 선임했다. 정 회장은 이번 재선임안이 의결되면서 지난 2019년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 GSE타워에서 제 49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3월부터 8년째 대표이사직을 이어간다. 성 전무는 융복합 선행 기술 등 주요 연구·개발 영역을 총괄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이사회 내 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임"이라고 설명했다.

사외 이사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박현주 BNY 멜론은행 한국 대표가 선임됐다.

현대모비스는 임직원 보상 및 우리사주제 실시를 위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도 승인했다. 이 안건은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시 주주 승인을 의무화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정된 의안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이 줄면 향후 배당과 배당이 늘어나는 구조로 주주환원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LS에코에너지,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 버스트급 공급

LSCV, 800만 달러 규모 공급계약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자회사 LSCV가 글로벌 IT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버스트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800만 달러(약 120억

원) 규모로 LSCV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Johor Bahru) 지역의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에 맞춰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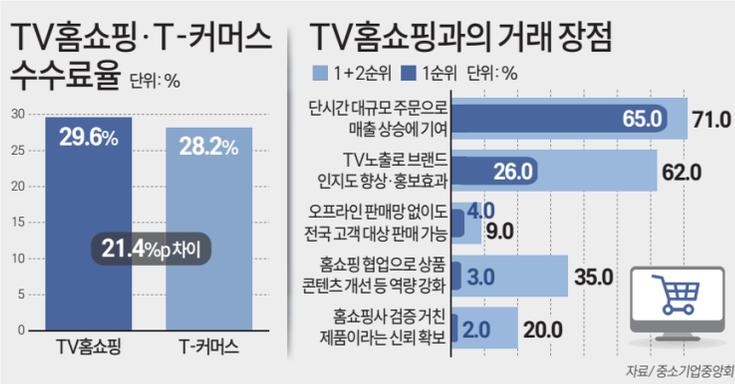
LSCV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데이터센터 수주에 이어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까지 이어지며 아세안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력 인프라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며 "버스트급과 전력케이블을 아우르는 전력 인프라 사업을 강화해 아세안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수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중소기업인들, 홈쇼핑 수수료 부담

중기중앙회, 856곳 애로 실태조사
 홈쇼핑 수수료 29.6% 수준
 T-커머스도 28.2% 달해
 채널 간 격차 1.4%p 불과
 공영·KT쇼핑 ‘최저 수수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가 절실한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TV홈쇼핑과 T-커머스 수수료는 평균 25~30%로 부담이 여전했다. 생방송을 하는 TV홈쇼핑과 녹화방송을 하는 T-커머스의 수수료 차이는 고작 1.4%포인트(p)에 그쳤다.

재고부담이 없어 중소기업 등 판매자에게 유리한 ‘직매입’ 비중은 전체 상품의 5%가 채 되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TV홈쇼핑, T-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856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100곳은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모두 거래하고 있는 곳들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판매액 대비 평균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6%, T-커머스가 28.2%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TV홈쇼핑 중에선 공영홈쇼핑(25%), T-커머스 중에선 KT쇼핑

(25.4%)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상품군에 따라 수수료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TV홈쇼핑과 T-커머스 모두 평균 30%에 달하는 수수료율 부담은 중소기업의 마진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TV홈쇼핑·T-커머스 동시 이용 기업의 경우 정률제 적용에 따른 평균 수

료율은 ‘30% 이상’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60.9%로 가장 많았다. ‘20~29% 사이’라는 답변은 33.7%였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년 기준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배송비 포함)은 GS(29.9%), CJ(29.6%), 롯데(28.9%), 현대·NS(28.7%), 홈앤쇼핑(22.8%), 공영(1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직접계약시 가장 보편적인 거래방식은 두 판매 채널 모두 ‘위·수탁’이 76% 가량을 차지했다.

유통벤더사와의 계약시에는 ‘위·수탁/특약매입’ 방식이 각각 9.8%(TV홈쇼핑), 11.9%(T-커머스)로 2~4.5% 수준인 ‘직매입’ 방식보다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70% 이상은 거래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반 이상은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이 생각하는 거래상 가장 큰 장점은 TV홈쇼핑의 경우 ‘단시간에 대규모 주문이 발생해 매출 상승에 기여’, T-커머스는 ‘시간 제약이 없어 자유로운 거래 가능’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년 기준 전년보다 거래비용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도 TV홈쇼핑이 42.5%, T-커머스가 42.3%였다. 실제 TV홈쇼핑과 T-커머스와 거래에서 최대 단점으로 ‘판매수수료 같은 과도한 비용 지급’이 꼽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TV홈쇼핑과 T-커머스는 중·소상공인의 핵심 판로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송출수수료 증가 등으로 거래비용 부담은 여전하다”며 “중·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등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포스코그룹, 철광석·가스로 벌고 리튬·니켈·흑연 투자확대

철광석·가스 수익 창출 지속
아르헨 리튬 상업화 가시권
배터리 원료 투자 확대 본격화



호주 로이힐(Roy Hill) 광산에서 철광석을 채굴해 적재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이 철광석·가스 등 기존 자원 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가는 가운데 리튬·니켈·흑연 등 배터리 원료 투자도 확대하며 자원개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기존 수익 자산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핵심 광물 확보에도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17일 포스코홀딩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로이힐 투자에서 약 2138억원의 배당을 받았고, 약 1613억원의 지분법 이익도 반영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12.5%를 보유한 호주 서

호주 지역 로이힐 철광석 광산은 연간 6000만톤 이상의 철광석을 생산하는 대형 광산으로, 포스코는 이 가운데 약

20%를 조달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0년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으며, 2023년 10월 누적 배당과 철광석 구매 할인 효과를 합쳐 투자비 전액을 회수했다.

가스 사업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호주 가스전 자회사 세넥스홀딩스는 지난해 매출 약 3922억원, 당기순이익 약 281억원을 기록했다. 미안마 가스전 역시 핵심 자산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안마 해상 A-1·A-3 광구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중국 CNUOC에 약 30년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분 51%를 보유한 운영권자로서 생산과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4단계 개발

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27년 3분기 신규 생산 개시가 목표다.

원료탄과 철광석 공급망도 유지되고 있다. 캐나다 그린힐스 광산은 원료탄 통합광산법인인 EVR 지분 형태로 전환돼 공급 기반을 이어가고 있으며, 캐나다 철광석 광산 AMMC 투자에서는 지난해 약 952억원의 지분법 이익이 반영됐다.

이 같은 기존 자산의 기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원개발의 범위가 배터리 원료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사업은 상업화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 1단계 공장은 준공을 마쳤으며 이달 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초기 가동률은 약 60% 수준에서 출발해 3분기

이후 정상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2단계 역시 연내 준공이 추진되고 있다.

리튬 확보와 가공 체계 구축도 병행되고 있다. 호주 리튬광산 지분 투자는 상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광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포스코아르헨티나의 LIS 리튬 자원 인수, 미국 유타주 리튬 직접추출(DLE) 데모 플랜트 구축, 아르헨티나 2단계 상공정, 포스코리튬솔루션 2단계 하공정 등에 대한 투자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순천 수산화리튬 공장을 중심으로 하공정 투자가 이어지며 염호·광산 자원과 연계한 리튬 밸류체인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SK네트웍스
민팅 지분 90% 매각

AI 중심 사업지주회사 전환 속도

SK네트웍스가 중고폰 거래 회사인 ‘민팅’ 지분을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 전문 투자사인 티앤케이 프라이빗에쿼티에 양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견고히 하고, 인공지능(AI) 중심 사업지주회사로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SK네트웍스는 최근 민팅 지분 90%를 티앤케이 프라이빗에쿼티에 450억원의 금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거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SK네트웍스 정보통신사업부 산하중고폰 사업 브랜드로 정보통신기기 리사이클 문화 조성을 통한 ESG 경영에 기여했던 민팅은 2021년 독립 분사했으며, 전국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통신대리점 등 주요 생활거점에서 ‘민팅 ATM’을 통해 중고폰 무인 거래를 이끌어왔다. /차현정 기자 hyeon@

고려아연, 양자컴 핵심소재 ‘인듐’ 부각

국내 유일 생산... 美 수입량 30% 공급

고려아연이 국내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전략 광물 중 하나인 ‘인듐’이 최근 급부상하는 양자컴퓨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듐 수입량을 30%를 공급하는 등 한미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 광물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의 중추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양자컴퓨터 산업이 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핵심 소재인 인듐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졌다. 원자재 시장조사 전문기관 패스트마켓 M B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 인듐 시장 평균가격은 kg당 725달러로 1년 전인 2025년 3월 평균 392달러 대비 약 85% 상승했다.

학계에 따르면 양자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QPU(양자처리장치) 칩셋의 커넥터를 만드는 데 인듐이 필요하다. 인화인듐(InP)은 포토닉 집적회로(PI

C)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재료로 거론된다. 양자컴퓨터의 성능 고도화와 상용화가 진전될수록 인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듐을 생산하는 고려아연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로 99.999%의 고순도 인듐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윤범 회장 취임 후 전략광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화수율 증대 등에 주력하면서 연평균 90~100톤 수준으로 인듐 생산량을 끌어올렸으며, 2025년 기준으로 연간 97톤을 생산했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려아연은 미 정부와 협력해 테네시에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할 비철금속 재련소를 세우기로 했다. 사실상 고려아연이 미 첨단산업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인텔릭스, ‘나무엑스’ 기능 고도화

음성명령으로 사용자 따라 이동

SK인텔릭스가 웰니스 로보틱스 ‘나무엑스(NAMUHX)’에 사용자를 인식, 따라 이동하는 ‘팔로우 미(Follow Me)’ 등 신기능을 추가했다.

17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팔로우 미(Follow Me)’ 기능은 로봇이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와이파이 연결과 별도의 터치 없이 음성 명령만으로 제품을 동작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하이 나무, 나를 따라와”라고 말하면 마치 반려동물처럼 사용자의 발 움직임을 인식해 뒤따라 이동한다.

이를 통해 제품을 직접 옮기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서 에어솔루션(Air Solution)을 통한 공기질 관리와 바이탈 사인 체크(Vital Sign Check) 등 다양한 웰니스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



‘팔로우 미’ 기능으로 사용자를 인식해 따라 이동하는 웰니스 로보틱스 나무엑스. /SK인텔릭스

능을 활용해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요리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에어 쉴드(Air Shield)’ 기능도 지원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다.

이밖에 ‘복약 알림 기능’에 복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 기능을 추가했으며 체온·맥박·산소포화도 등 사용자의 바이탈 사인 측정 결과에서 생체 이상 징후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지정된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달하는 ‘푸시(PUSH)’ 기능도 새롭게 적용했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안정적 라이브 서비스 기반, 북미 등서 새로운 성과 창출”

정석모 스마일게이트 CGO

“CGO 조직, 글로벌 성장 위한 외부 기회 발굴·실제 성과 연결”

로스트아크, 북미·유럽서 성과 韓·中 핵심기반으로 日 등 공략

스마일게이트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과 조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합류한 정석모 CGO(최고글로벌책임자)가 입사 6개월을 맞아 글로벌 사업 방향과 조직 운영 구상을 공개했다.

17일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정석모 CGO는 최근 스마일게이트 뉴스룸 인터뷰에서 “CGO 조직의 역할은 글로벌 성장을 위한 외부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내부 스튜디오가 좋은 게임을 만드는 동안 외부에서 파트너십과 사업 기회를 찾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정 CGO는 게임업계와 투자업계를 모두 경험한 사업 전문가다. 스마일게이트 합류 전에는 넥스에서 약 6년간 CBDO(최고비즈니스개발책임자)로 사업 개발을 총괄했고 이후 글로벌 COO(최고운



정석모 스마일게이트 CGO.

영책임자)로 회사 경영과 게임 서비스 운영을 맡았다. 이후 투자회사에서 약 6년간 투자 업무를 담당하며 글로벌 사업 경험을 쌓았다.

그가 이끄는 CGO 조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글로벌 파트너십과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사업개발 BD 조직, 외부 파트너와 진행하는 프로젝트 제작을 관리하는 개발관리 조직, 게임 출시와 서비스 전략을 담당하는 GTM(Go To Market) 조

직이다. 여기에 게임화가 가능한 소셜이나 애니메이션 등 외부 콘텐츠를 발굴하는 IP 소싱 기능도 함께 운영한다.

정 CGO는 합류 이후 조직 운영 체계 정비에 집중했다. 각 조직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업무 데이터를 내부 위키 기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그는 “업무 문화는 선언만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프로세스와 툴을 정

리하면 자연스럽게 협업 방식이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새로 입사한 직원이 업무를 파악하기 수월해졌다고 말했는데 이런 변화가 조직 준비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일게이트의 위상도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다. 그는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의 성공으로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회사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로스트아크가 북미와 유럽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위상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네트워크와 투자를 꾸준히 이어온 점이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CGO는 “텐 하우스와 협력이 공개된 이후 글로벌 파트너들의 인바운드 협업 제안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글로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기존 라이브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꼽았다.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등 주요 게임이 서비스되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 시장이 핵심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본 시장 역시 중요한 전략 지역으

로 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도쿄 게임쇼에서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등을 선보이며 일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정 CGO는 “기존 시장에서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를 유지해야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 기반 위에서 북미 등 웨스트 시장에서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시장 공략은 장기적인 도전 과제로 보고 있다. 그는 “북미 시장에서 성공하는 공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싶은 원칙으로는 “품질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정 CGO는 “게임 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국 품질”이라며 “품질이 좋다면 당장 성과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빛을 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좋은 개발자와 창작자 집단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검증 시스템도 더 과학적으로 구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단기 성과보다 고객중심 기본·원칙 입각”

정재현 SKT CEO

체질개선·고객가치 혁신 강조 AI 접목해 장기적 경쟁력 축적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체질 개선을 통한 고객가치 혁신과 인공지능(AI)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오래가는 단단한 SK텔레콤을 만들고자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오는 26일 제42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등 사업자라는 편안한 익숙함을 내려놓고, 고객 중심의 기본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낫설게 보며 변화해 간다는 각오로 2026년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 생산성 중심의 체질



개선과 고객가치 혁신을 강조했다. 정 CEO는 “단기적이고 관행적인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고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AI를 접목해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본원적 경쟁력을 축적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시대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진 통신 인프라는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욱 빠르면서도 끊임 없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며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체감 품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AI 기반 스파스·스미싱 차단 등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AI 기반 개인화가 작동하는 마케팅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품·서비스, 고객 정보 관리와 정산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IT 시스템을 AI 비즈니스 시스템

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다변화된 고객 접점에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에이전트로 진화를 도모하며 AI콘택트센터(AICC) 활용을 높여 고객 만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AI를 SK텔레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CEO는 “지금까지의 AI 사업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큐베이션 차원이었다면 이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집중해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는 AI 경쟁 하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예로 든 게 울산을 비롯해 서울·서남권 지역에 추가 건설을 계획 중인 ‘AI 데이터센터(DC)’, 산학연계 컨소시엄이 함께 개발한 ‘에이닷엑스(A.X) KI’이다. 정 CEO는 “이러한 AI 자산이 사업 기회로 진화할 가능성도 면밀히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KT ‘하이오더’, 실시간 이용 20만대 돌파

이용 확대 기념 ‘4행사 이벤트’ 진행

KT가 프리미엄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의 실시간 이용 테이블 수가 20만대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출시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이다.

하이오더는 2023년 5월 출시된 이후 외식업 매장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돼 왔다. 최근에는 호텔, 병원, 산후조리원, 종교시설, 크루즈 등 비외식 업종으로도 설치가 확산되는 추세다.

KT는 하이오더 이용 확대를 기념해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이오더 4행사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10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3000원권을 제공한다.

또 ‘테이블오더 후기 이벤트’를 통해 실제 사용 경험을 공유한 고객 가운데 우수 후기 1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5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 500명에게 스



KT 모델들이 KT의 프리미엄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를 소개하고 있다. /KT

타벅스 커피쿠폰 1만원권을 지급한다. KT는 테이블오더 도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가서비스 ‘하이오더 안심매입’도 운영한다. 약정 기간 내 폐업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사용 중인 하이오더 단말을 최대 15만원에 매입하고, 단말이 설치된 테이블과 의자도 최대 25만원에 매입해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은 월 1650원(VAT 포함)이다. /김서현 기자

AI반도체 기업과 ‘K-엔비디아’ 만든다

과기부·금융위, 민관 합동 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과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리벨리온, 퓨리오사AI, 하이퍼엑셀, 딥엑스, 모빌린트 등 국내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과기부·금융위는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해 저전력·저비용 NPU 중심의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는 국산 AI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에도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과기부·금융위는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현황과 국산 NPU 산업 육

성 계획을 발표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가 범용성 중심에서 저전력·고효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방안을 설명하고 AI·반도체 분야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AI 및 반도체 분야에 약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차세대 NPU 제품 개발 로드맵을 소개하며 대규모 투자 재원이 확보될 경우 제품 양산 시기를 앞당겨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LG U+, 차세대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올포랜드와 AI라이브버스 사업 협력 RTK 기술로 위치 cm 단위까지 반영

LG유플러스가 초정밀 위치측위 기술 기반의 차세대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를 위해 공간정보 기업 올포랜드와 AI라이브버스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

올포랜드는 공간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지난해 초정밀측위(RTK) 기술을 활용한 BIS 서비스 ‘AI 라이브버스’를 공동 개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라이브 버스를 고도화하고 구독형 서비스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 라이브버스에는 LG유플러스의 RTK 기술이 적용돼 지상 기준국과 전용 단말을 연동해 위치 정보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반영한다. 도로 상황, 날씨, 시간대, 과거 운행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뿐 아니라 단말 유지보수와 운행 현황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사모대출 펀드 ‘환매 러시’… AI 거품 붕괴 뇌관 되나

올 1분기 약 101억 달러 환매 요청 AI기업 대출 부실, 시장 전이 가능성 JP모건 실제 손실 발생 ‘위험 신호’ 자산·부채간 유동성 mismatch 우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유명 사모대출 운용사 클리프워터는 올 1분기(1~3월)에 330억 달러(약 48조8400억원)의 주력 기업대출펀드에서 14%의 지분에 대한 환매 요청을 받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처럼 환매 요청이 빗발치자 최근 클리프워터가 환매 비율을 지분의 7% 이하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노스헤이븐프라이빗인컴펀드’에 대한 환매 한도를 전체 주식의 5%로 제한했다. 투자자가 요청한 비중의 약 절반만 수용한 것이다.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AI 거품’이 꺼질 경우 관련 기업이 대거 받아간 사모대출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은 1분기에만 대형 사모대출펀드에서 100억달러(약 14조99억원)가 넘는 규모의 자금 회수에 나섰다.



비슷하지만 다른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이미지. /IM증권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블랙스톤, 블랙록, 클리프워터, 모건스탠리, 먼로캐피탈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사모대출 펀드에서 1분기에 접수된 환매 요청 규모는 101억 달러로 추산된다. 해당 운용사들은 환매 요청액 가운데 70%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FT는 보도했다.

환매 요청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레스 매니지먼트, 아폴로 글로벌, 블루아울, 오크트리, 골드만삭스 등도 환매 요청 규모를 집계하고 있

다. 많은 운용사 임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펀드 실적과 무관한 무차별적인 매도로 보고 당혹해한다고 FT는 전했다.

사모대출 펀드는 최근 5년 사이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 월가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골드만삭스의 추산에 따르면 해당 펀드들의 운용 자산은 2021년 말 340억달러에서 작년 말 2220억달러로 약 6.5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메타 외에도 오라클·xAI 등의 AI ‘공룡’ 기업이 대규모 사모대출을 받았다. 사모대출 펀드엔 핏코·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 및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월가의 전통 금융사 자금도 최소 1200억달러 투입됐다고 FT는 전했다.

그러나 최근의 환매 움직임은 이런 성장세를 되돌려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내 해당 펀드들의 자산 감소액이 450억~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모대출은 일반적으로 비은행 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을 칭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미국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기존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 여파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사모대출 시장이 급성장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모대출은 은행권 대출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고 자산 평가 또한 주관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AI 시설 투자가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사모대출을 크게 늘렸다”며 “AI 산업이 흔들릴 경우, 사모대출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BIS는 사실상 대출이지만 정부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모대출을 ‘그림자 대출’이라고 지칭했다.

실제 지난 11일엔 JP모건이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행한 사모대출을 회수하기 어렵게 돼 손실 처리한다고 발표하는 등 ‘위험 신호’는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 사모대출 부도율은 올 1월 기준 5.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무적 어려움으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지급을 유예하는 ‘지급유예형 대출(PIK)’ 대출 비중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김선경·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사모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 구조로 이뤄져 있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경우 차입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향후 디플트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유동적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기 환매 구조를 갖는 투자상품 특성상 자산과 부채 간 유동성 mismatch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종목의 시대… 코스닥 ETF 시장 지각변동

한화·미래에셋 액티브 ETF 신규 상장 타임폴리오·삼성 합산 1.3조 수준 지수보다 개별 종목 중요성 부각

코스닥 시장이 지수 흐름보다 개별 종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갈리는 ‘종목장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잇따르며 운용사별 종목 선별 전략이 뚜렷해지고, 자금도 지수보다 개별 종목으로 분산되는 흐름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화자산운용의 ‘PLUS 코스닥150액티브’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가 신규 상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코스닥 액티브 ETF를 선보인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관련 상품이 4종으로 확대됐다.

초기 흥행도 확인됐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코스닥 액티브 ETF는 전일 기준 순자산총액 4621억원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코스닥 액티브 ETF는 8427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상품을 합치면 1조3048억원 수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이 3월에 코스닥 액티브 ETF를 선보였다. /각사 제공

준으로, 단일 테마 ETF군이 단기간에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신규 상장된 한화·미래에셋 ETF로 자금 유입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단순한 상품 확대를 넘어 운용 전략의 차별화다. 각 ETF의 포트폴리오는 성격이 뚜렷하게 갈린다. 한화자산운용은 약 30개 종목으로 압축 투자하며 반도체·바이오 중심에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더하는 전략을 택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술이전 성과를 기반으로 바이오 기업에 집중하는 섹터 특화형 구조를 택했다.

선발주자들 역시 방향이 다르다. 삼성액티브운용은 중소형 성장주 중심, 타임폴리오운용은 코스닥 대표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실제 코스닥 액티브 ETF 간 상위 편입 종목은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중복이 적다.

이 같은 구조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 흐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존 코스닥 ETF는 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 대부분으로, 수급이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액티브 ETF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종목과 비중을 조정하는 만큼 자금이 개별 종목으로 분산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코스닥 시장 성격 변화의 신호로 보고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액티브 ETF 상장은 패시브 중심이던 코스닥 ETF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시장 환경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만큼 개별 종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예탁결제원 “주총 안 가도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주주 참여 확대 등 효용 높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가 주주 참여 확대와 기업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총회 참여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는 주주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주는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러 기업이 같은 날 주총을 열더라도 물리적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행사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종료일 오후 5시를 제외한 시간 동안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은 주주총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시스템을 활용하면 의결정착속 확보가 보다 원활해지고 주주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예탁결제원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이다. 2010년 전자투표,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해 약 15년간 운영 경험을 축적했다.

디지털 환경에 맞춘 서비스도 확대했다.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21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주주총회 정보를 안내하는 ‘전자고지 서비스(e-Notice)’를 도입했다. 주주는 카카오톡 안내를 통해 주총 정보를 확인하고 곧바로 전자투표에 참여할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이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용 서비스도 확충했다. 투자일임업자와 연기금 등 고객 간 의결권 위·수임 기능과 함께 일괄·통합 의결권 행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총 194개 기관투자자가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다.

앞으로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연계도 추진된다. 예탁결제원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에 맞춰 기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신규 의결권 행사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주주가 의결권 행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기업이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서비스는 예탁결제원 전용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프리·애프터마켓 개장’ 9월로 연기

거래소, 시스템 개발 완성도 향상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 프리·애프터마켓 시행일을 9월 14일로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존 시행 예정일이었던 6월 29일에서 약 3개월 연기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충분한 테스트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증권업계 의견에 수용한 조치”라며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프리마켓 종료 시간도 기존 오

전 8시에서 오전 7시 50분으로 10분 앞당겨진다.

한국거래소 프리마켓 종료시각(오전 7시 50분)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개시시각(오전 8시) 사이에 증권사 준비시간(10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증권사가 프리·애프터마켓 참여 여부를 비롯해 연장된 시간대에 대한 참여 범위 및 시간 설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공정위, 정몽규 검찰 고발... 계열사 20곳 고의 누락 의혹

(HDC 회장)

누락 회사 자산 규모 매년 1조 이상 사실 인지 후에도 자진 신고 안해 제도 신뢰성 훼손 행위로 판단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 회장은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HDC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HDC(구현대산업개발)는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1999년 현대 그룹에서 친족 분리한 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2018년에는 HDC 중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HDC 정몽규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것으로 판단했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HDC 동일인 이자 HDC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정 자료 제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자료 제출 대상 친족도 2021년 기준 21명 수준으로 다른 대기업집단보다 적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락 회사들은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

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정자료 준비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진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 실무진은 친족회사 직원들에게 지분율이 30% 이상 인지 여부를 문의했고,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은 정 회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정 회장은 일부 회사 지분 상황까지 언급하며 친족을 직접 만나 확인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1년 이후 HDC가 누락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당시 다른 기업집단 총수가 친족회사 누락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고, 공정위도 지정자료 제출 양식을 강화해 친족회사 확인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음잔디 과장은 "내부적으로 누락 사실을 점검했지만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 들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누락 사실이 내부적으로 확인된 시점에 동일인의 매체가 17년간 맡아온 HDC 계열회사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하는 등 연관성을

숨기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누락된 회사 중 하나인 컨스트랄레는 외삼촌 일가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HDC 계열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다.

정 회장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매년 1조원을 웃돌았다.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 동안 HDC 계열회사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포함됐더라도 HDC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나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 과장은 "이번 사건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 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aT, 농축산물 할인 '유통업체 꼼수' 막는다

'부정수급 신고센터' 가동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7일 aT에 따르면 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aT 홈페이지 갈무리.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예로 ▲행사 직전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판매 ▲정부지원 할인을 미준수 ▲1인 할인한도 초과 동일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린 정산

요청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aT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통업체의 지원금을 회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을 두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하며, 향후 시스템을 개선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남,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내달 30일까지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요금 지원을 4년 연속 시행한다.

한남은 17일 민생경제안정과 에너지 복지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사업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남 공급구역 내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이며, 난방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방문 접수, 콜센터(1688-2488)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23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경기 여건과 정부의 민

생 안정 정책 기조를 고려해 올해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난방요금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만7000세대에 5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3월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약 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외 취약계층에 대해 기존 난방비 정산 방식 대신 정책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난방비 고지서 제출과 검증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최근 2개년 평균 지원 실적을 반영해 에너지바우처 수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2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기 AI 전환 위해 현장밀착 훈련사업 추진

산업인력공단, 운영기관 5개소 선정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훈련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AX)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AX 현장훈련' 운영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겪는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교육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AI 솔루션 기업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공모와 심사를 거쳐 ▲티쓰리큐 ▲심플랫폼 ▲제네시스 ▲비앤비솔루션 ▲파인더이 등 5개 AI 솔루션 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실제 업무를 분석하고 AI 활용 가능성을 진단한 뒤, 기업 핵심 업무에 맞는 AI 적용 방안을 도출한다. 이후 AI 솔루션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직무 훈련(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해 재직자들이 실제 업무 데이터 활용과 AI 적용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정개발비와 훈련비 지원도 확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포니랑 놀자"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체험' 재개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큰 인기를 모은 렛츠런파크 서울의 '포니체험' 프로그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포니체험 프로그램은 작은 말 품종인 포니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가을 때 회차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동절기 동안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프로그램이 봄을 맞아 다시 문을 열었다.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방문객은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내 포니체험라운지에서 시간대별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한번에

기후부, 해상풍력법 26일 시행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를 실시한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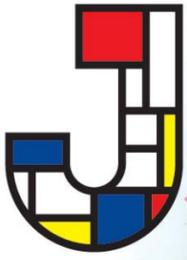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된 '충남 보령 해상풍력 발전사업' /뉴시스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영향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JOONGANG
PAINTING
EXHIBITION
2026

2026 중앙 회화 대전

글로벌 아티스트, 꿈을 그린다...

2026 제6회 중앙회화대전 공모전은 출품자의 약력과 수상 경력, 소속 등 모든 정보를 제외하고 오직 작품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공모전입니다. 올해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꿈'을 주제로 국내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 회화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며,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역동적인 작가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전통과 현대, 기성 및 신진작가 간의 예술적 교류를 도모하고, 동시대 회화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추구해 온 중앙회화대전. 장르와 재료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층적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작가분들의 미래, 대한민국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참가부문: 회화 작품 전체(동/서양화, 구상/비구상)
심사방법: 온라인 예선 접수 후 본선진출작 300점 선별
 → 오프라인 2차심사 진행
작품규격: 30호 F 단일 규격(가로 세로 구분 없이 90.9X72.7cm)
 작품 총 두께 5cm 미만, 액자 없이 캔버스로 제출
온라인 접수: 2026년 3월 9일(월)~6월 19일(금)
1차심사: 2026년 6월 23일(화) | 발표: 2026년 6월 25일(목)
2차심사: 2026년 8월 4일(화) | 발표: 2026년 8월 5일(수)

온라인 출품료: 20,000원 (1인 1점)
국내전시 참여 비용: 300,000원 (전시장 대관, 도록/홍보물 제작, 언론홍보 등에 사용되며, 작품 제출 및 반출료는 작가 개인 부담)
국내전시: 2026년 8월 6일(목)~8월 10일(월) |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
시 상 식: 2026년 8월 10일(월) 오후 2시

문의전화: 02-6743-330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jpe.gongmojeo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 JOONGANG PAINTING EXHIBITION

jpe.gongmojeon.com

주최 **The JoongAng** 후원 **소프소**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중앙일보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관광·제조 투트랙... 부산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나선다

50억 투입, 820명 신규 고용 목표
자치단체로 이관, 지자체 직접 기획
기업 성장·고용 확대 선순환 기대

부산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시비 포함 총 50억원을 투입해 관광·마이스와 제조업 등 부산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가 선순환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총 10개 세부 사업을 통해 82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중앙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일부 유형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역 산업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먼저 관광·마이스 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인력 유입 확대와 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부산 관광·마이스업계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마이스



'2026 해운선사 해기사 취업박람회'가 열린 1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선사의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뉴시스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인당 300만원의 정착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부산 관광·마이스 3UP 프로젝트'와 '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3UP 프로젝트는 재직자의 복지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역량 강화 등을 위해 1인당 450만원(기업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고, 그로우업 지원 사업은 기업의 맞춤형 컨설팅 및 신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며 신규 채용 1인당

800만원(기업당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숙련 인력의 고용 안정과 산업 전환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은 숙련기술자의 이·전직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장려금 750만원과 근로자 인센티브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제조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뿌리·철강산업 좋은 일터 조성 고용안정 지원 사업은 신규 채용 1인당 1000만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조선기자재산업 고용친화·일터환경 혁신사업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채용 1인당 1000만원(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조 유망기업 판로개척 스케일업 지원 사업, 제조산업 산업전환 혁신성장 지원 사업, 조선기자재산업 고용·기술혁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판로 확대,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과 연계해 1인당 1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부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광·마이스와 제조산업 등 부산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가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인재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경북 로봇산업 산·연·관 선포식

포항시가 경북도와 구미시, 지역 로봇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포항시는 16일 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경북 로봇산업 발전 산·연·관 공동선포식'을 열고 경북권 로봇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거제시 '이륜차 전국 번호판' 시행

거제시는 이륜 자동차 번호판이 오는 20일부터 지역명이 삭제된 전국 번호판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현행 이륜 자동차 번호판에는 지역명이 표기돼 있지만, 이날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단일 체계로 개편된다. 새 번호판은 크기가 가로 210mm, 세로 150mm로 기존보다 커지고, 글자 색도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뀐다. 시인성이 높아져 야간이나 원거리에서도 번호 식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이륜 자동차는 전국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거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위 출범식

경남도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고, 지난 16일 컨벤션센터(CECO)에서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 범도민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정치권·산업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과 대정부 협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경남도는 4대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진흥 ▲산업혁신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문화관광으로의 도약이 골자다. 지역 특화 산업 고도화와 1차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창출을 두 축으로 삼았다. /경남=손병호 기자

책 돌려주면 환급... 경북, 서점 살리기

지역서점 책값 돌려주기 사업 이용 늘리고 독서 문화 확산

경북도가 침체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를 구매한 뒤 반납하면 금액을 환급해 주는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역 서점 이용을 늘리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3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내 반납하면 구매 금액 상당을 지역상품권이나 도서교환권 등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납된 도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돼 '구매·독서·반납·기증'으로 이어지는 독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안동시와 상주시, 의성군, 울진군 등 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경북도는 지난해보다 환급 금액을 상향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도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만 14세 이상 경북도민이며 1인당 월 최대 3권까지 참여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 도서를 구매한 뒤 12주 이내 영수증을 지참해 참여 서점이나 시군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구매 금액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참고서와 교과서, 잡지 등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부 운영 사항은 시군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16일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준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준공

동해안 해양문화 관광 거점 조성

경주시가 문무대왕의 호국정신과 해양정신을 기리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조성하고 동해안 해양 역사문화 거점 조성에 나섰다.

경주시는 16일 오전 감포읍 대본리 옛 대본초등학교 부지에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프랑스 명장셰프 180명, 강진서 미식 체험

강진군, MCF 초청 전통 문화행사

세계적인 요리사 단체인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 셰프 180여명이 강진을 방문한다.

강진군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26년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초청 전통미식·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이 하나로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 서울총회 참석차 방한한 셰프들을 전라남도로 초청한 일정 중 강진을 찾아 지역의 전통 음식과 청자, 민화, 다도 등 강진

의 문화자원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실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하루 60여명씩 총 180여명의 프랑스 셰프와 관계자들이 강진을 방문한다.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 소속 셰프들은 방문기간 중 백운동 원림과 다도체험, 한정식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쌀귀리, 된장 고추장, 표고버섯 등 강진산 식자재의 활용 또는 구매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민화뮤지엄에서 민화체험과 물품구매에 이어 고려청자 판매장을 방문해 강진청자의 식기 활용 및 구매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동남권 中企 'AI 전환' 협력 체계 구축

울산과학기술원-중진공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동남권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UNIST는 16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중진공과 'AI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산업 AI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UNIST의 교육·연구 역량과 중진공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결합해 현장 활용 가능한 AI 인재

를 키우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초 실무 교육부터 심화 연구, 학위 과정까지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UNIST는 노바투스 아카데미와 AI·AX 산학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심화 과정을 지원하고, 중진공 부산경남 연수원은 AI 업무 자동화·불량 예측·품질 검사 분석 등 현장 중심 교육을 맡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창원시 올해 전기 이륜차 706대 보급

창원시가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17일 '2026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1차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목표는 총 706대로 전년 대비 6% 늘었으며, 투입 예산은 총 11억 1200만원이다. 1차 공고에서는 이 가운데 200대를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규모·유형과 연비·배터리 용량·등관 능력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당 최대 지원액은 일반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 공유형 160만원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식품업계, 지배구조 개편 팔 걷어 사업 확장 등 경영 연속성 높인다

주총 시즌, 신뢰회복 분기점 삼아
CJ제일제당 집중투표제 도입 추진
SPC삼립 사명 변경·경영진 교체
농심 신상열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동원산업 자동차 전장사업 본격화
오뚜기 주당 9000원 현금배당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안정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사회 견제 장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기업들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정관 정비와 내부 통제 강화, 주주환원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총 일정은 19일 롯데칠성음료를 시작으로 농심, 롯데웰푸드(20일), CJ제일제당(24일) 등으로 이어진다. 26일에는 대상, 빙그레, 삼양식품, 오뚜기, 오리온, 하이트진로, SPC삼립 등 주요 식품 대기업 주총이 집중된다.

올해 주총의 핵심 화두는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배구조 정비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9월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제

도로, 이사회 견제 기능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주요 식품기업들은 정관 개정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선임 기준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확대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단순 형식 변경을 넘어 내부 통제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부 기업들은 이번 주총을 신뢰 회복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그간 배제해왔던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인적분할 이후 실적 부진과 담합 의혹 등으로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감사위원으로는 재정당국과 관세청을 거친 외부 인사를 선임해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SPC삼립은 사명 변경과 경영진 교체라는 강수를 꺼냈다. 상호를 '삼립'으로 되돌리며 지주사 체제 정비에 나선 한편, 신규 각자대표 체제를 통해 안전경영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반복된 산업재해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체제 아래에서 오너 리스크 단절과 재무 투명성 강화에 집중한다. 외부 인사를 이사회와 감사위원으로 영입해 내부 견제 기능을 높이

고,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오너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흐름도 이어진다. 대상은 임상민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농심은 신상열 부사장을 신규 선임하며 3세 경영 승계를 본격화한다. 롯데웰푸드, 오뚜기, 하림 등 주요 그룹 오너들도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올렸다.

사업 구조 개편과 신사업 확대를 위한 안건도 잇따른다. 동원산업은 라이다 센서와 자동차 전장 사업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삼양식품은 지주사업을 포함한다. SPC삼립 역시 사명 변경과 함께 지주사 체제 준비를 병행한다.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롯데웰푸드는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 빙그레 역시 발행주식의 약 3%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오뚜기는 주당 9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며 고배당 기조를 이어간다.

식품업계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재무 안정성 확보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 변동성과 정부의 가격 안정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익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해외사업 확대와 함께 현금흐름 관리, 경영 연속성 확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모델이 고덕지도 앱을 사용하고 있다.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中 '슈퍼 앱' 공식 채널 연다

'고덕지도·따종디엔핑' 채널 구축

롯데백화점이 중국 내 슈퍼 플랫폼 앱(APP)에 진출해 유커(중국인 관광객)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롯데백화점이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중국 최대 플랫폼인 '고덕지도'와 '따종디엔핑'에 공식 채널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덕지도'는 월간 이용자 수만 약 10억 명에 달하는 중국 1위 지도 앱이며, '따종디엔핑'은 7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 최대 규모의 리뷰 및 라이프스타일 공유 플랫폼으로 두 앱 모두 현지인의 일상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슈퍼 앱'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은 도합 17억 명에 달하는 현지 앱 사용자들의 여행 동선을 입국 전부터 선점에 나서 글로벌 쇼핑 허브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박상우 롯데백화점 마케팅 부문장은 "유커들의 여행 트렌드가 중국 슈퍼 앱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입국 전부터 고객 접점을 선점하는 것이 마케팅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국 내 1위 플랫폼에 공식 채널을 운영해 유커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쇼핑 허브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롯데온, 22일까지 '엘타운 슈퍼워크' 진행

롯데 계열사 대표상품·콘텐츠 집결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 ON)은 16일부터 22일까지 계열사 대표 상품을 한데 모은 '엘타운 슈퍼워크' (L.TOWN Super Week)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 계열사 상품과 콘텐츠 한데 모은 롯데온의 '엘타운(L.TOWN)'에서 진행한다. 롯데GRS,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롯데온은 롯데리아의 인기상품인 리아 불고기 세트 지류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롯데웰푸드와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상품 구매 시 엘포인트를 추가 적립해 준다.

푸드, 디지털가전, 리빙 등 카테고리 별 행사도 진행한다. 푸드 부문에서는

롯데웰푸드의 구구 크러스터, 꼬깔콘·치토스 등 인기 스낵을 비롯해 광천김, 종근당건강, 매일유업, 사조 등 브랜드가 참여한다. 홈리빙 부문에서는 에경, 휘슬러 코리아, 까사미아, 키친아트, 신일전자 등을 할인 판매한다.

디지털가전 부문에서는 브라운 전기면도기, 에브리봇 로봇청소기, 나르왈 로봇청소기 등 생활가전을 선보인다. 로지텍의 인기 버티컬마우스 리프트 신규 '웜그레이' 컬러 론칭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봄맞이 여행에 적합한 롯데호텔 제주, 푸꾸옥, 방콕, 발리 등 다양한 패키지와 숙박 상품도 마련했다.

행사기간 동안 카테고리별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 카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신제품

해태제과, 두바이 스타일 스페셜 에디션

훈런볼·버터링·자유시간 등 구성

해태제과는 대한민국 열풍 트렌드 두바이 디저트를 과자로 즐기는 두바이 스타일 시리즈(사진)를 선보인다.

제과업계에서 단일품목으로 두바이 디저트 맛을 담은 과자가 나온 적은 있으나 5종을 시리즈로 묶어 한번에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스타치오의 고소한 매력을 다양한 과자로 맛볼 수 있는 팔방미인 컬렉션은 ▲훈런볼 ▲예쓰의케이크가게 ▲버터링 ▲자유시간 ▲초코픽 등 5종이 그 주



인공이다. 해태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두바이 디저트의 맛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했다.

두바이 스타일 스페셜 에디션은 두 달간 시즌 한정으로 만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쿠팡, 무료 로켓배송 적용 기준 변경

실제 결제금액 1만9800원 이상
일부 판매자 가격조작 행위 방지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무료 로켓배송 기준 가격이 이전보다 오른다. 쿠팡은 16일 고객 공지를 통해 일반 회원이 무료 로켓배송을 받기 위한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기존 '할인 적용 전 판매가 1만9800원 이상'에서 '쿠폰·즉시할인 적용 후 최종 결제금액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4월 중순 이후로 예정됐다. 이번 변경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어야 무료 로켓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입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로켓배송 무료배송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로켓배송뿐 아니라 익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할인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쿠폰이나 카드 할인 등을 적용해 최종 결제금액이 1만9800원 이하가 되더라도 무료배송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1만9800원인 상품이 할인 적용 후 1만7000원으로 결제되더라도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쿠팡측은 이번 조치가 일부 판매자의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 로켓그로스의 경우 로켓배송과 달리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는 구조다. 이에 일부 판매자가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율을 크게 적용해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문을 유도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정책 변경이 주요 유통업체들이 이미 할인 적용 후 최종 판매가 기준으로 무료 배송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준에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들의 부당 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영양 진단' 특허 취득

"케어푸드 시장 리더십 공고히 할 것"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2022년부터 운영 중인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팅 영양 진단'이 지식재산처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리팅 영양 진단은 소비자가 공식

온라인몰 '그리팅몰'과 전문 영양 관리 앱인 '그리팅 케어'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자신의 영양 상태를 점수로 알려주고, 영양 상태에 알맞은 식재료와 식습관은 물론, 자사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인 '그리팅(GREATING)'의 최적 식단까지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특허 취득의 배경

에 대해 단체급식과 케어푸드 사업을 통해 쌓아온 방대한 영양학적 연구 데이터와 국내 최대 규모 케어푸드 제품 라인업을 갖춘 점 등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양 연구 데이터와 식품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을 돕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케어푸드 시장 리더십 기업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4090억弗 시장 ‘희귀의약품’… 국내기업 연구개발 활발

온코네티라퓨틱스 ‘네수파립’
이문은시아 ‘덴버스토투그’ 등
신규 희귀의약품 지정 속도
제품화 위해 종합지원 필요

‘희귀의약품’이 글로벌 제약 시장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희귀의약품과 이프라인 구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표한 ‘국내 희귀의약품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희귀의약품은 398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73개다.

이 중 국내 기업이 신청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61개로 그 비중은 84%에 달한다. 또 개발 주체별로 살펴보면, 44개의 바이오벤처 기업이 48개, 7개 제약 기업이 13개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기업의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향후 희귀의약품의 국내 제조 기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제미니에 의해 생성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K혁신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이미지.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뿐 아니라 미래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도 ‘희귀의약품’ 성장세가 확인됐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이벨류에이트가 발간한 ‘2026 희귀의약품보고서’에서 오는 2032년 희귀의약품 시장은 40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 1조8900억 달러의 약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희귀의약품 비중은 2022년 15%에서 2025년 18%로 지속 커지는

추세다. 해당 보고서는 희귀질환 가운데 현재 치료제가 존재하는 질환이 약 5% 수준에 불과해 시장 성장 여력이 여전히 크다고 풀이했다.

또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희귀의약품에 7년, 유럽연합에서는 10년의 시장 독점권이 부여된다.

이러한 국내외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희귀의약품 개발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신생 신약개발 전문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는 핵심 과제인 ‘네수파립’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추가하고 있다.

네수파립은 파프·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이며, 다암종 치료제로 개발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소세포폐암’ 희귀의약품 지정을 확보했다. 앞서 췌장암, 위암에 대해서는 이미 2021년과 2025년 미국 FDA에서 각각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유한양행 자회사 이문은시아도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국내 첫 면역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문은시아의 신규 면역항암제 ‘덴버스토투그(개발명: IMC-001)’는 지난 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식약처가 운영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제도’ 적용 대상으로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 심사 대비 최대 25% 단축될 수 있다.

전통 제약사의 경우, 한미약품도 희귀질환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의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에페거글루

카곤(HM15136)’은 미국 식품의약품(FDA), 유럽 의약품청(EMA),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등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이 물질은 폭넓은 적응증 추가 가능성도 갖췄다. 미국에서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로, 유럽에서는 인슐린 자가면역증후군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획득했다.

GC녹십자는 희귀의약품인 선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알리글로’ 발매에 이어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ICV’ 상업화에 착수해 있다.

헌터라제ICV는 GC녹십자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머리에 삽입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뇌실 내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R&D 역량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다”며 “국내 기업의 개발 역량이 실제 제품화와 시장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재정 지원, 그리고 임상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3754억 CMO 계약… 수주잔고 1조

(위탁생산)

(올해 1분기)

내년부터 글로벌 제약사 공급
고객사에 제형변경 기술 제공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원료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계약상대는 경영상 비밀유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 상대 회사에 바이오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게 된다. 계약 금액은 약 2949억원이 확정됐으며, 향후 양사 협의에 따라 최대 3754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생산 준비를 조기에 완료해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바이오의약품 사업 과정에서 높은 품질 수준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 효율적인 생산 공정 운영 역

량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왔다. 이번 계약도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생산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고객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성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글로벌 CMO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초 일라이 릴리와 약 6787억원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계약까지 성사시키며 올해 1분기 만에 누적 CMO 수주 잔고 1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위탁개발생산(CDMO) 협력 문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회사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를 통해 CMO 사업 운영 체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의 CMO 사업은 고도화된 기술 기반의 사업 모델을 제공하는 것에

차별점을 뒀다. 램시마SC, 허쥘마SC 등 축적한 SC 제형 변경 기술을 외부 고객사에도 제공한다는 ‘제형변경 CMO’ 사업이 그 사례다. 단순 위탁 생산의 개념을 넘어 고객사의 제품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고부가 CMO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셀트리온은 현재 송도(1·2·3공장, 총 25만L)와 미국 뉴저지 브랜치버그(6.6만L) 시설을 포함해 총 31.6만 리터의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향후 집콕트라를 비롯한 자체 제품의 글로벌 판매 확대 및 신규제품 추가에 따라 현재 보유한 생산 캐파의 상당 부분이 자사 제품 생산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SK바이오팜, 발작 감지·예측 AI 공동연구

美 에모리 의대와 2년간 연구 진행
뇌전증 지속 모니터링 구현 목표

SK바이오팜은 조인트 벤처(JV) ‘멘티스 케어(Mentis Care)’가 미국 에모리대학교 의과대학과 발작 감지 및 실시간 예측을 위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2년간의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은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뇌파 분석 AI 기술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역량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 연구는 임상 환경의 표준인 10-20 뇌파(EEG) 시스템부터 축소 채널 기반 웨어러블 EEG까지, 서로 다른

환경 전반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는 트랜스포머 기반 EEG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생활 환경에서 지속적인 뇌전증 모니터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멘티스케어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에모리대학교 의과대학 측이 보유한 100만 시간 이상의 비식별화 EEG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공동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 큐레이션 및 표준화된 전처리 파이프라인 구축 ▲고성능 발작 감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다양한 환자군 및 기록 환경에서의 검증 ▲축소 채널 기반 웨어러블 EEG

시스템에 대한 모델 적용 ▲발작 전 실시간 예측 모듈 확장 등 5개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다만 이번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될 실제 제품은 추가 개발과 임상 시험, 관련 규제당국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산 코토프(Hassan Kotob) 멘티스케어 CEO는 “에모리대학교 의과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하려고 하는 범용 AI 모델은 연속적이고 실제 생활 환경에 기반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라며,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 3명 중 1명에게 이는 향후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바이오팜은 이번 협력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적 저변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경 기자

“李 대통령 부부가 직접 선택한 뷰티 제품”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때필링’
닥터벨머 제품 등도 함께 구매

LG생활건강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남 창원에 방문해 현지 반송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K뷰티 제품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5일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반송시장’ 내 화장품 매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화장품 매장에 진열된 수많은 K뷰티 제품을 둘러봤고, 평소 K뷰티에 큰 관심을 보였던 김 여사가 주도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했다.

이날 이 대통령 부부가 고른 제품은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의 ‘보들보들 때필링’이다.

이 제품은 스프레이형 바디 스크럽이다. 얼굴을 제외한 피부에 가볍게 뿌리고 손으로 문지르거나 핸드 각질을 제거할 수 있다. 간편하게 문은 때와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입소문을 타



더페이스샵 ‘보들보들 때필링’ /LG생활건강

며 마니아층이 형성된 제품이다. 녹두, 검은콩, 쌀 등 세 가지 곡물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으며 보습 효과도 갖췄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품을 구입하며 “몸에 하면서… 때가 잘 (떨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때 타일 안 써도 때가 엄청 나온다”며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 부부는 LG생활건강 더마 화장품 브랜드 닥터벨머의 ‘애플 마스크 시카렙타이드’를 비롯해 네일 지우개, 화장솜 등도 구입해 K뷰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청하 기자

‘화산송이·숯 파우더’로 피지관리 효과 ↑

이니스프리 ‘블랙 화산송이 클렌징오일’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가 모공속 블랙헤드와 과다 분비 피지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블랙 화산송이 파하 모공 클렌징 오일’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피지 흡착 효과가 있는 숯 파우더를 함유한 블랙 색상의 오일 제형이다. 피부에 부드럽게 굴리면서 메이크업, 미세먼지, 노폐물을 제거하면 된다.

또 각질 주기를 개선하는 성분인 ‘AH A’와 ‘PHA’를 더해 세안과 동시에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해 준다.

특히 오일이 물에 닿는 순간 빠르게 유화되도록 설계돼 세안 후 잔여감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제주 청정 원료인 ‘화산송이’와 ‘숯 파우더’를 활용해 피지 흡착 및 피부 정화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3월 31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항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마술공연



리싸이틀 사회
탤런트 이경영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SKT '고객자문단' 출범... 서비스·마케팅 기획 참여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서울 성수동 T팩토리에서 고객자문단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고객자문단의 역할을 고객과 회사가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 채널로 확대하고, 직장인·주부·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 자문단은 상품·서비스와 마케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고객이 겪는 불편 요소를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SK텔레콤



하나은행,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하나은행은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광주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공이 함께 광주·호남 지역에서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마련됐다. /하나은행



iM금융그룹, 시니어 금융교육과정 운영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iM뱅크 제2본점에서 'iM시니어금융대학'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iM사회공헌재단은 노인 인구 증가와 금융환경의 급격한 디지털화로 시니어 계층의 금융 소외현상이 심화하는 데 주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iM금융그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시와 첨단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기 안산시와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안산시와 지난 16일 안산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제공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 수출 지원 ▲핵심인력 장기채직을 위한 인력사업 협력 등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

- ◆BBS불교방송 △라디오제작국 라디오편성부장 황교운
- ◆대한불교조계종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 연규스님
-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 문일근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장 김명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장 조현은
- ◆삼진제약 △마케팅 실장 이예진 상무이사

부음

▲이재민씨 별세, 이경호(전 충청타임즈 기자)씨 부친상=17일 오전 4시30분, 빈소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66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30분. 043-210-5444.

'삼성 아트 스토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컬렉션 선배

삼성전자, 현대미술 명작 34점 공개
마티스·폴록·칼로 대표작 포함
아트 스토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삼성 TV만의 아트 구독 서비스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앙리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Femme au chapeau, 1905)'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과 파트너십을 맺고 TV 아트구독서비스인 '삼성 아트 스토어'에 20세기 현대 미술 거장의 작품을 담은 'SFMOMA 컬렉션'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SFMOMA는 미국 서부 최초의 현대 미술관으로 20세기 회화와 조각, 사진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공개된 'SFMOMA 컬렉션'은 앙리 마티스, 잭슨 폴록, 프리다 칼로, 피에트 몬드리안 등 20세기 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 34점으로 구성됐다.

▲앙리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 ▲잭슨 폴록의 '비밀의 수호자' ▲프리다 칼로의 '프리다와 디아고 리베라'

▲디에고 리베라의 '꽃 바구니를 든 사람' ▲피에트 몬드리안의 '뉴욕 시티 2' ▲웨인 티보의 '진열된 케이크' 등 20세기를 풍미한 예술가들의 상징적인 작품들이 포함됐다.

이번 컬렉션을 통해 미국 팝아트의 거장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웨인 티보의 작품도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게 돼, 삼성 아트 스토어의

현대 미술 컬렉션의 깊이와 다양성이 한층 넓어졌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전 세계 115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삼성 TV 전용 예술 구독 서비스다.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MOMA), 오르세 미술관, 아트 비젤 등 주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800명 이상의 작가들의 5000점 이상의 방대한

작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TV 라인업에서 만날 수 있는 '삼성 아트 스토어' 서비스를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주도하며 거실을 예술 작품으로 가득한 갤러리로 바꿔 나가고 있다.

예술 작품 감상에 특화된 '더 프레임 프로', '더 프레임' TV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RGB, OLED(S95H 모델), 네오 QLED 및 일부 QLED TV 시리즈까지 확대하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의 감성까지 더하고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안희영 상무는 "전세계 거실에서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기관들과의 협업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참가단체 모집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착수

SK이노베이션

9월 코엑스서 본선 무대
내달 21일까지 예선 접수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제10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GMF)'가 오는 9월 본선 무대를 앞두고 예선 참가단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GMF는 2017년 SK이노베이션의 후원으로 시작해 올해 10회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다. 발달장애인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자립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하트-하트재단이 주최하고 SK이노베이션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2019년부터는 대상 수상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예선 접수는 다음달 21일까지 하트-하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클래식 또는 실용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2인 이상의 발달장애인 연주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GMF) 예선 참가단체 모집 포스터. /SK이노베이션

본선 공연은 9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예선을 통과한 6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며 대상 1팀을 포함한 6개 팀에 총상금 2100만원이 수여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GMF는 지난 10년간 발달장애인들이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무대로 자리잡아왔다"며 "올해도 참가자들이 각자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과기정통부, 개선 로드맵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대응해 전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 혁신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전파 규제 개선에 관

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국민 편의 향상 및 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 등 두 가지다. 공모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2명(각 30만원) 등 총 5명을 선정한다.

같은 기간 전파 관련 협·단체와 소비자 협·단체 등 약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전문가와 기업 등 전파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김서현 기자 seoh@

웅진그룹, 부천시 도서관에 아동도서 기부

어린이 독서권 보장위한 활동 지속

웅진그룹이 경기 부천시에 있는 도서관 26곳에 어린이 전집 2만6000여 권을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17일 웅진그룹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지난해 그룹과 부천시가 지역 아동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한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자회사 웅진씽크빅을 통해 어린이 도서 1만여 권을 기증한 데 이어 올해는 전집 1020세트, 약 2만 6000여 권을 추가로 지원했다.

부천시는 전달받은 도서를 시립도서관 11곳과 작은도서관 15곳 등 총

26곳에 배부하고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기부 도서는 웅진씽크빅의 '웅진북클럽 바이백' 서비스를 통해 회수한 도서로 마련됐다. 소비자가 구매한 전집을 일정 기간 이용한 뒤 반환하면 보상에 주는 프로그램으로, 회수된 도서는 재생용지로 재활용하거나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독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난 2월 열린 전북 완주군 소재 '구미오막 작은도서관' 개관식에서 (왼쪽 여섯번째부터) 남기홍 KB국민은행 충청·호남3(전주)지역본부장, 유희태 완주군수, 김수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B작은도서관' 전국 143곳으로 확대

KB국민은행 9곳 추가 건립

KB국민은행은 올해까지 143곳의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전국 어디서나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KB작은도서관은 일상 속 독서 문화 확산과 문화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 사회에 도서관을 건립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각지에 유희공간을 활용한 KB작은도서관 134곳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장성군 ▲경

남 김해시 ▲광주 광산구 등 전국 9곳에 친환경 원목을 활용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병행하고 '찾아가는 책버스', '전자도서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문화와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 NOL 티켓 평점 9.9 공연 만족도 100%! | 대학로 NO.1 여성전용 섹시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헝키쇼

2025.11.28 ~ OPEN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본 적 없던 섹시 코미디

헝키쇼



관객 참여로 더 큰 웃음!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

매번 다른 조합 매일 다른 캐릭터!

나이 상관 없이 하나 될 ㅋㅋ

〈헝키쇼 NOL TICKET 리얼 후기〉

NOL티켓 바로가기

도파민 팡팡 스트레스 타파!!

soa***님 ★★★★★

스트레스 너무 만병이라 탈주해서 간 공연. 너무 재밌어서 눈을 날정도로 웃고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 6명이 눈호강 귀호강 시켜주는 잊지 못할 공연이었어요!! 매 공연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것도 재미!! 한번만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저도 모르게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있더라고요

a10***님 ★★★★★

사실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헝키쇼 덕분에 공연을 보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장면을 완성하는 참여형 쇼!

ins***님 ★★★★★

공연 끝나고 나올 땐 우울한 마음이 어디 갔는지 썩 사라져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웃고 나왔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n회차 관람해도 n번째로 새롭다는 점. 배우분들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같은 배우여도 표현이나 애드립이 달라서 여러 번 본 저도 매번 새롭게 즐기게 돼요.



카메라를 켜 위 큐알코드를 스캔해보세요!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개혁을 포기했는가?



전 용 호 교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은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핵심 과제를 담아내지 못한 채, 알맹이 없는 선언적 나열에 불과하다. 정부가 표방하는 국가책임지는 전생애 기본돌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이번 로드맵은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돌봄 연구자들의 모임인 '넥스트케어(nextcare)'도 주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엇보다 돌봄의 핵심 동력인 제공기관과 인력, 예산 확보 계획이 미흡하다.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 등 '돌봄 사막' 지역의 인프라 확충 방안은 보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 필수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빠져 있다. 실질적인 돌봄

통합이 아닌 '분절적 확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게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조사와 관정 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쪼개져 흩어져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반드시 단행해야 할 제도적 개혁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통합돌봄을 '긴급과제'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혁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2029년이나 2030년으로 정권 말기로 뒤로 미룬 것은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너무 안일하고 정책 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서도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장기간이 걸렸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압축적 근대화를 겪었으며, 돌봄 문제 역시 어느 국가보다 집중적이고 심각하게 폭발하고 있다. 간병 부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참혹한 간병 살인, 돌봄 부족으로 인한 방임과 노인 자살 증가 등의 비극이 속출하는 현시점에서 선진국의 속도를 이유

로 정책 도입을 늦추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조직 운영의 난맥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국'을 신설하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오히려 반대다. 벌써부터 기존의 노인정책국 등과의 협업조차 어려워한다는 말이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며 부처 내 칸막이조차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면 대체 왜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람 중심의 돌봄은 분절된 서비스의 단순한 물리적 합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돌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인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작금의 로드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안정적인 예산 투입과 인프라 구축, 뼈를 깎는 제도 개혁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통합돌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4·7세 고시'는 끝났다



이지수집
이 현 진
(정책사회부)

몇 해 전 주말 오전이었다. 학원가가 한가할 시간인데도 유독 그 학원 앞만 북적였다.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갔고, 나 역시 아이의 레벨테스트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아이는 금세 장난감 얘기부터 꺼냈다. 그만큼 아이는 어렸고, 시험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초등학교에 간 뒤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영어 학원도, 수학 학원도 입구에는 늘 레벨테스트가 있었다. 학원만 바뀌었을 뿐, 아이들은 분반과 선발의 문턱 앞에서 계속 경쟁해야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조기 경쟁을 부추겨 온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방향에는 공감한다. 유아를 시험대에 세우고, 그 결과로 줄을 세우는 관행은 분명 과했다. 문제는 이 조치만으로 경쟁까지 멈출 수 있는냐는 점이다. 경쟁이 계속되고 공교육이 그 수요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한 사교육은 멈추기보다 우회로를 찾고, 결국 더 음지로 스며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현장도 비슷한 방향을 가리킨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29%였다. 하지만 서초구는 56%, 강남구는 52.5%로 절반을 넘었고, 강북구는 14.7%, 중랑구는 13.7%에 그쳤다. 경제적 격차가 곧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

니라는 얘기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도 곱씹어볼 만하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줄었고 참여율도 75.7%로 4.3%p 낮아졌다. 겉으로 보면 사교육 부담이 다소 꺾인 듯하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교육은 금지한다고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를 움직이는 것은 시험 자체보다도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이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사교육만 단속해서는 부족하다. 부모들이 왜 이렇게 이른 시기부터 불안해하는지, 왜 아이 손을 잡고 학원 문앞에 서게 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4세 고시'를 멈추자면, 이제는 시험만이 아니라 그 경쟁을 키우는 구조까지 함께 바꿔야 한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8일 (음 1월 30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취** 48년생 여행 가고자 하는 곳에 도적이 들끓습니다. 60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72년생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때입니다. 84년생 원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 49년생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61년생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됩니다. 73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85년생 지나친 욕심은 결국에 화를 부릅니다.
- 호랑이** 50년생 가는 곳마다 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2년생 일은 풀리지 않고 얽혀갑니다. 74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마세요. 86년생 조그만 소망은 이루어지니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 토끼** 51년생 좋은 사람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3년생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건강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87년생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 52년생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고 실천하세요. 64년생 자식들에게 안부 전화하도록 하세요. 76년생 친척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합니다. 88년생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세요.
- 象** 53년생 귀하의 약점이 들어날 수 있습니다. 65년생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경쟁자 나타납니다. 77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89년생 말 실수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 말** 54년생 삶을 재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66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8년생 의외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90년생 취업운이 없는 하루입니다.
- 양** 55년생 고집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길합니다. 67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9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91년생 어린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 원숭이** 56년생 두서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68년생 혼자 힘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겠습니다. 80년생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 닭** 57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69년생 재발된 병으로 가족에게 근심 주게 됩니다. 81년생 마음에 안정이 없고 중심이 없어 힘든 하루입니다. 93년생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 돼지** 58년생 다른 생각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세요. 70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82년생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오는 운입니다. 94년생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일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 돼지** 59년생 밀려오는 부채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71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83년생 활암이나 스트레스를 주의하세요. 95년생 더 가지려 하지 말고 현재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김상회의四季 기도터

지난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돼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점을 보는 외국 젊은이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일종의 문화체험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만큼 기도에 진심인 민족이 또 있을까? 기도터 역시 전 국토의 70%가 산이다 보니 천년고찰은 물론이요, 산등성이나 골짜기마다 소소한 암자까지 기도 흔적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하물며 동네 어귀나 마을의 오래된 나무까지도 서낭당이라 하여 잠시를 지나가더라도 마음을 모아 빌고 지나가곤 했다. 산도 많지만, 물도 많아 산 높고 물 맑은 특성상 민간신앙으로서 산신 신앙과 용신 신앙의 강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영험한 산과 강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한 산 중에 으뜸은 계룡산이요, 물줄기 중의 으뜸은 한강이 아닐 수 없다. 삼천리 강산 그 어디라도 기도 터로서 명성이 빠지는 곳은 드문데, 사람들은 산중 어디라도 기괴한 모습을 한 곳이 있으면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고 계곡 어디라도 물이 흘러 폭포나 소를 이루고 있으면 반드시 치성을 드렸다. 알려진 바로는 삼국시대 때 신라의 화랑들은 명산대천을 다니며 무예를 닦고 기도를 드렸다고 하며 스님이나 도인들은 물론 무속인들 역시 자신들만의 기도처를 발굴하여 기도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 올려놓고도 햇볕을 보며 가족 건강 등 소원을 빌지 않았던가? 각별히 효험이 뛰어난 테마 기도처도 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갖바위, 급한 문제 해결은 청도 운문사 독성각, 입시양평을 위한 기도는 공주 신원사이다. 또한, 무슨 소원이든지 간에 한 가지는 꼭 들어준다는 남해 보리암 등 처처에 나름의 내공을 자랑하는 기도처가 나열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레코드를 갱신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5	3		1
		8		3	2
					7
		9	4	3	1
		5			8
		1	4	5	9
				7	
					9
					7

6		1		6		8	3
		9					
		1		2			7
8	9		2				6
		7				3	
		6				3	5
						5	9
		2		6		1	
						4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종로 전 청사 '개방형 복합 교육 공간'으로

행정 기능 재배치, 청사 기능 전환 AI·건강·행정·온라인학습 지원 리모델링 과정서 안전성 검토도



서울시교육청 종로 전 청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용산 신청사 이전과 함께 종로구 전 청사의 행정 기능은 재배치하고, 학생·교직원·시민이 함께 쓰는 AI·건강·행정·평생학습 결합형 '서울교육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형 교육모델 확산, 학부모·시민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45년간 사용해 온 종로구 청사를 개방형 복합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 기능 일부는 재배치 하되, 청사 기능은 학생 성장과 교직원 지원, 시민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 플

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간 재배치 계획을 보면, 본관 1~2층에는 AI 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학생 대상 프로젝트형 체험교육과

기업·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에게도 디지털·AI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안팎의 교육 경

계를 낮추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열린 교육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보건안전진흥원 1층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한다.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직원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본관 10층에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조성해 순환근무와 협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본관 3~6층에는 중부교육지원청, 7~8층에는 보건안전진흥원을 각각 이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행정 공간을 확보한다.

정보 인프라도 강화한다. 보건안전진흥원 지하 1층과 2~3층에는 서버실을 확충하고, 이원화된 교육정보화부를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행정과 온라인 학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별관동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 배치해 민간 임차 부

담을 줄이고 노사 상생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내진 성능과 석면 등 안전성 검토를 병행해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일정은 ▲2025년 활용계획 확정 및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2026년 투자심사·예산 반영·설계 착수 ▲2028년 상반기 공사 완료 후 개관 순으로 진행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종로구 청사가 단순한 행정청사를 넘어 서울교육 정책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학생·교직원·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시 '엄정 처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담조직 설치·소명권 보장 등 담

앞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돼도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할 이유 없는 인사상 불이익은 금지되고,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보육교직원 보호 전담조직 설치 근거와 민원 조사 과정의 소명권 보장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진정 조사 과정에서의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할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민원이나 진정 제기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현재 서울·경기 2개 시도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담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취·창업 실패 경기도민 재도약 프로그램

경기도-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재도전학교' 운영... 경쟁률 6대 1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취업이나 창업 실패를 경험한 도민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기 재도전학교' 제1기 참가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실패 경험자들이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심리 치유와 직무 역량 강화,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제1기 모집에는 총 301명이 지원해 50명 정원 기준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순이었다. 지원자 가운데 191명(63%)은 구직을, 110명(37%)은 창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원 동기는 취업 좌절, 퇴직 후 재취업 실패, 창업 후 조기 폐업, 반복되는 취·창업 실패 등이었다.

제1기 교육은 RE:DO, 우리 다시 할 수 있어요를 주제로 3월 23일부터 27일

까지 진행된다. 충북 충주의 깊은산속운달샘연수원에서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이, 의정부 아일랜드캐슬호텔에서 2박 3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각각 운영되며 참가 비용은 무료다.

교육 과정에는 개그맨 고명환의 '365일 가슴 설레며 도전', 작가 고도원의 '꿈 너머 꿈' 등 명사 특강과 취·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힐링 프로그램, 재도전 계획서 작성, 비전 선포식 등이 포함된다.

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과 협력해 취업 상담과 창업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료 이후 창업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 제도 참여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재도전학교는 4기수로 운영돼 참가자 200명 중 약 45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했다. 참가자 전원이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올해는 운영 규모를 5기수로 확대한다. 제2기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모집은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광화문 방문객 편의·체류 만족도 높인다

서울시, 교통·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 상담·외국어 지원 인력 확대도

서울시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교통·안전·관광 통합안내에 나선다. 공연장 안팎의 교통 통제와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서울광장과 서울갤러리 등 도심 곳곳에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연 관람객의 편의와 체류 만족도를 함께 높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연 관련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 페이지를 서울시 누리집 내에 개설하고 교통, 안전, 편의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 임시 우회 버스노선, 차량 통제 구간, 공연장 반입 금지 물품, 인근 화장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영어, 중국어 간체·번체, 일본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현장 안내도 강화한다.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현수막과 공연 티켓부스에 비치되는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리플릿은 공연장 인근 관광안내센터와 숙박시설 등 주요 거점에도 비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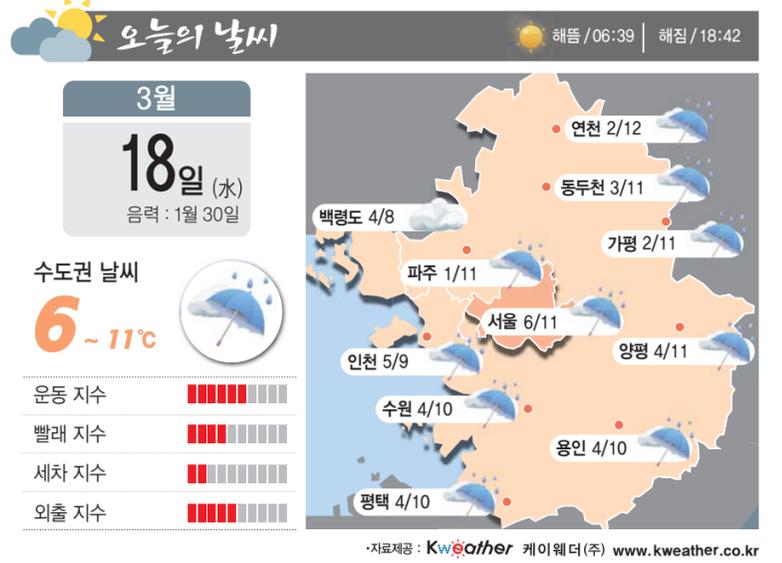
공연 전날과 당일에는 120다산놀재단의 상담 인력과 외국어 지원 인력도 늘린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현수막과 공연 티켓부스에 비치되는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서울시

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실시간 음성 인식 모니터링과 상담사 교육 강화로 특이 민원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이스라엘군, 테헤란의 IRGC해군본부 폭격 파괴 발표 /사진 뉴스사
▲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장기 점령?..."지상전 개시, 피난민 복귀 불가"

▲ "이란전? 우리 전쟁 아냐" 독일도 손절...사면 초가 트럼프
▲ 홍콩 매체 "트럼프는 狂人...미중 회담 연기, 中에 불리하지 않아"

▲ "日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검토 착수"
▲ "日, 美에 AI 조선기술 개발 1억달러 투자 추진"



4090억 달러 시장
희귀의약품
국내 연구개발 활발
L2



Life

삼성아트 스토어에
현대미술 거장
컬렉션 공개
L4



선행매매 차단... 서약서·투자점검 등 언론윤리 바로세운다

메트로경제 언론윤리실천위원회 | 2026년 제 1차 정기회의 |

선행매매 의혹에 언론계 윤리 도마위
일부기자 취재정보로 사익편취 논란

메트로미디어, 5년째 윤리위 가동
자사기자 주식투자 가이드라인 세워
기자의 불공정거래 원천차단 나설 것

최근 일부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사익 편취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언론계 전반의 윤리가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 매체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한 뒤 기사로 작성하기 전 주식을 취득하는 '선행매매'로 정부의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무료배포신문 <메트로신문>과 유료 경제일간지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는 자사 기자들의 주식 투자 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윤리강령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훼손된 언론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취재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언론윤리실천위원회 2026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2021년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해 총 8차례에 걸쳐 내용을 개정해왔으며 지난 2022년부터는 이순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자체 '언론윤리실천위원회'를 구성해 5년째 운영하고 있다.

메트로미디어가 2021년 제정한 윤리강령에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서부터 취재규약, 보도규약, 이용자 권리보호, 기사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운영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자들의 선행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차제에 이 같은 선행매매 예방 및 근절에 대한 내용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회의를 넘어, 최근 무너진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율규제 기능을 점검하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좌담회에는 ▲이순우 언론윤리실천위원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옥원 위원(현 미래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정운영 위원(현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 ▲김건섭 위원(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승원 위원(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발생한 기자들의 일탈과 범죄 행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 2월 일부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메트로미디어의 '언론윤리실천위원회 2026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이옥원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 이순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승원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김건섭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왼쪽부터) 등 언론윤리실천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메트로미디어

“ 전문가 조언 참고해 타 매체보다 엄격한 내부기준 수립할 것 ”
이장규 대표

“ 정상투자 존중하되, 서약서·표본점검 등 다각적 관리방안 검토 ”
이순우 위원장

“ 불법 주식거래, 수익 상관없는 '목적범'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
김건섭 위원

“ 투자 원천봉쇄 힘들어 펀드 등 간접투자 권장 유연한 접근 필요해 ”
임승원 위원

“ 단순규제보다 구체적 사례 교육 우선 불법거래 경계 문화 조성 ”
정운영 위원

고, 관련 효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한 선행매매 사건이 드러났다.

해당 사안은 특정 언론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언론사에서 확인됐으며, 다수의 기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모 경제신문은 압수수색 이후 사장 사임과 사과문 발표, 구성원의 단기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윤리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타 언론사들이 이미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트로미디어도 언론윤리실천위원회의 조언을 참고 삼아 기존 메트로미디어의 윤리강령에 기자들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명확하고 엄격한 내부 기준을 추가하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회사 차원의 예방·점검 시스템과 정기적인 기자교육, 윤리 서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기자 개인의 투자 내역을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가”를 놓고 팽팽한 의견 차이도 보였다.

임승원 위원은 “기자들의 투자행위에 대해 선연적인 의미의 회사 방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자 역시 개인 투자자로서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권리가 있으며, 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임 위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하고, 직접 투자 대신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을 권장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김건섭 위원은 “과거 규제 당국의 불법 주식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불법의심 거래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그러나 불법 주식거래는 '목적범'이란 점에서 그 거래로 돈을 벌든 잃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전 직원의 단기 매매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기자들의 투자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투자

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만큼은 '무관용 원칙'으로 폭넓게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사내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정운영 위원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산업 동향이나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해도 실제 운영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며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기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단순한 교육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케이스스터디'를 실시해 기자들 사이에서 불법투자를 경계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임승원 위원은 “회사 차원에서 강의를 실시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사포식과 서약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을 때, 기자들조차 몰랐던 다양한 위법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위원은 불시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내역 점검조사 방안도 제시했다. 이옥원 위원은 “선서와 윤리 서약 또한 중요하지만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무작위로 투자 내역을 점검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순우 위원장은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의 정상적인 투자는 존중하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서약서 징구와 일부 인원에 대한 표본점검 등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기자들의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안 서약서'를 제작한 바 있는 메트로미디어는 이번 좌담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KT, 6경기 만에 시범경기 첫 승... '이재원 멀티포' LG에 8-5 승리
▲베네수엘라, 이탈리아에 4-2 역전승... 사상 첫 결승 진출
/사진 뉴스스

▲'소속팀 복귀' 이정후, 첫 타석부터 2루타 폭발... 김혜성도 6G 연속 안타
▲'이란, 美 아닌 멕시코서 월드컵 치르길 원해'... FIFA와 협상 중

▲'NBA 승률 1위' OKC, 미네소타 꺾고 8연승 질주
▲'KPGA 개막전 제패' 임진영, 세계랭킹 94계단 오른 149위